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5년 12월 1일 목요일 제73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은 진리를 구한다. 믿음이 높으면 진리는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오묘한 밀법으로 중생구제"

총지종, 12월 24일 제33주년 창교절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정통밀교의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 정연한 교상과 사상으로 일체중생의 해탈을 구현하는 밀장의 신비스런 진리가 여기에 있다."

총지종은 창종 33주년 창교절 행사를 오는 12월 24일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될 예정이다.

창교절을 즈음하여 효강 종령예하는 지난 11월 6일부터 창교절인 12월 24일까지 자신의 허물과 모든 죄업장을 소멸하는 '49일 허물불공' 시행을 공포하여 "49일 동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와 '너'를 분별하는 마음, 자신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마음을 소멸하여 모든 승직자와 교도들은 진주처럼 청정한 자신의 불성을 찾아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여 화합된 종단, 일체중생의 구제에 선봉이 되는 종단을 구현하자"고 말하였다.

특히 이번 창교절 행사에는 청정한 승가단체 구성, 엄격한 계율로 웅비하는 종단, 과거의 악습과 관행을 탈피하여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입교개종의 의미를 되살려 모든 승직자와 교도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일대 개혁과 변화로 교화활성화를 위해 일체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상과 사상의 개발로 일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모든 사부대중들이 오묘하고 신비스런 밀법의 도량에서 해탈을 이룩하는 총지종 건설을 다짐할 예정이다.

"어르신 공경은 부처님 자비실천"

정각사, 명륜동 독거노인 점심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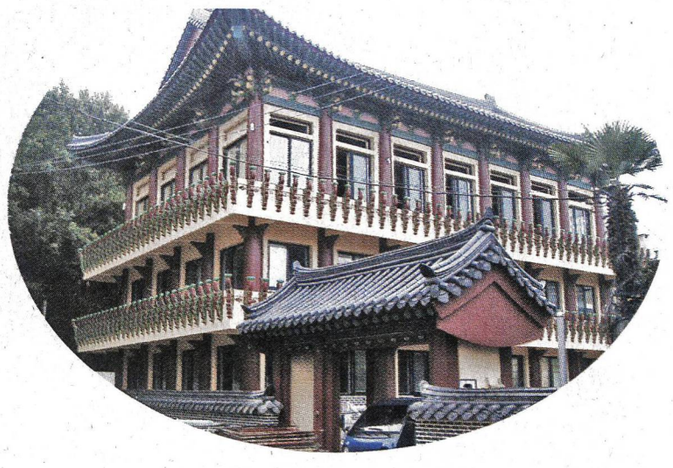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정각사 법성주교를 비롯하여 총지종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동문인 이진복 동래구청장, 조규태 명륜동 동장 등이 동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작년에도 정각사에서 점심공양을 대접하여 모처럼 맛있는 공양을 하였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점심공양을 받게 되어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라며 "앞으로도 정각사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이웃과 함께한 도량으로 더욱더 발전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정각사 공양처 보살들과 만다라 합창단 단원들은 '나'와 '너'의 구별없이 한 마음이 되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공양함으로써 자비행의 보살도를 실천하였다.

정각사(주교 법성)는 지난 11월 10일 정각사에서 부산시 명륜동 독거노인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하여 점심공양을 대접하였다.

이번 점심공양 행사는 지난해부터 부처님 자비실천의 일환으로 인근지역인 부곡동과 명륜동 독거노인을 초청하여 점심과 다과를 제공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을 드리지 못하지만 조그마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동체대비의 정신을 시현하고자 준비하였다.



덕화사, 부산지역 밀법 중심지 우뚝

새로운 총지도량으로 밀법 홍포

총지종 부산 덕화사(주교 대원)가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20일 자성불공을 시작으로 고통과 번뇌로 쌓인 일체 중생을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인도하는 태동을 알렸다.

덕화사는 지난해 12월초 부산시 덕천동에 대지296평에 연건평 343평,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시공업체인 연흥건설이 착공하여 공사기간 1년 만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덕화사 시공업체인 연흥건설은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덕화사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자세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주체적인 입장에서 건축양식을 개발하여 편리성과 장엄성을 고려하여 건축하였고, 작업자들은 성실시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덕화사는 불단장엄과 외부단청으로 총지종 건축양식의 일대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덕화사에서 자성불공을 마친 한 교도는 "덕화사 교도들은 이와 같이 웅장하고 도량다운 전당에서 불공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하였습니다. 이제야 그 발원이 성취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도들은 가정집의 조그마한 법당에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법회를 보고, 사원이 초라하여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절에 데려오기가 거북하였는데 앞으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며, 이웃제도를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말했다.

社 告

그동안 총지종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기 35년을 맞이하여 총지종보가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오니 총지종보의 발전을 위해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건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밀법홍포를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총지종보를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재기자 모집

총지종보사에서는 불심이 돈독하며 유능하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 집 명 : 0명
- 제 출 서 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 서류접수기한 : 총기34년 12월 20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종보사
- 연 락 처 : 02-552-1080~3
- 이메일 : kyjyja@hanmail.net

총 지 종 보 사

"사원운영의 합리화"

각 사원 사무지도 시행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원 사무지도를 시행하였다.

사원사무지도는 선도원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법경 사무국장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각 사원을 방문하여 사원의 총무 및 재무관리, 교도관리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선도원 총무부장은 "각 사원 사무지도는 사원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사원 운영의 합리성을 제공하고, 사원들의 애로점과 운영의 불편함 등을 청취하여 종단운영의 정책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다."며 "지적과 질책보다는 의견수렴과 발전적인 사원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사원은 차후에 일정을 통보하여 사원 사무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총지캠페인

쌀 이야기

쌀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식용작물로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4500여 년 전부터 재배해왔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식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1%씩 줄더니 1990년대에는 연평균 2.4%씩 줄어 이제는 1년에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한가마(80kg)정도로써 이는 70년대 한가마 반(137kg)이상이던 것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 작년 쌀의 재고가 150만 톤 이상 된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현상의 주된 요인은 식단의 서구화일 것이다. 아울러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 몫 더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인식 중 '쌀밥을 먹으면 살찐다.' '쌀밥은 당뇨에 안 좋다' '쌀은 성인병을 유발하기 쉽다' 등이 있는데 이는 낭설에 가깝다. 오히려 식품영양학자들은 서구화된 식단이 성인병 증가의 주요 요인이며, 쌀밥과 김치, 된장국 등으로 이뤄진 우리 식단은 식사 후 혈당지수를 더욱더 낮추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포도당인데, 쌀에 있는 전분질에서 분해된 포도당이 결국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므로 어릴 때부터 밀가루 음식 보다 밥을 주식으로 한 어린이의 뇌가 더욱 활동적이고 그래서 머리가 더욱 좋아진다고 한다.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쌀 수입 개방 압력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만은 없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이미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표명했으며 WTO회원국 중 현재까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인 것, 그래서 지금의 정부가 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협상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옛 부터 우리선조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농사를 나라의 근간으로 여기며 치산치수(治山治水)라 하여 그해 아무탈 없이 농사가 풍년이 되면 그 시대의 임금을 성군(聖君)이라 칭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사만을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서원한다. 그래서 피땀 흘려 농사지은 쌀에 농민 스스로가 불 지르는 아픈 현실이 없기를..

죽비소리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나니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라
세간의 이치는 덧없는 것이니
미혹하여 어둠 속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공부할 땐 마음의 등불 켜고
스스로 단련하여 지혜를 구하라.
번뇌를 여의어 더럽히지 말고
촛불을 잡고 도의 자리 관찰하라.

『법구비유경』 중에서

병술년 새해 대정진불공

한 해의 건강과 행복, 경제적 번영을 기원하고 당체설법으로 미래에 닥쳐올 마장을 미연에 예방하여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새해 대정진불공에 많은 교도들의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35년 1월 2일 ~ 1월 8일
- 장 소 : 총지종 전 사원
- 대 상 : 사부대중

불 교 총 지 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3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설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

총지불교대학원의 승직자 과정 교육인 아사리과정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교육을 끝으로 1학기를 마쳤다.

본 종단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석율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학기의 교육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들자면 교육 시간의 부족과 일부 수강생들의 소극적 참여, 그리고 학과목의 단조로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매주 1회 이루어지는 교육이 종단의 여러 가지 행사 일정과 부득불 겹치게 되어 한 학기 동안에 이수해야할 수업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보충수업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것 또한 종단의 바쁜 일정에 밀리어 생략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일부 수강생들은 1주일 1회 교육은 여러 가지 일정상 집중력이 떨어지고 본산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체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한다.

이점에 대해서도 교육 담당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종단의 공식불공기간에는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각 사원의 재불공으로 인한 교육 불참이 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은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에 최우선을 두지 않는 한은 현 상황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더욱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승직자들은 교육 자체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분위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과목의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화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 위주로 강좌가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기초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높고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그동안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미비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너무 높은 수준의 강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종단 교육의 상당부분은 밀교강좌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계(斯界)에 밀교를 교리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종단의 요구에 부합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은 실정이다.

또한 교육장소가 서울과 부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은 교과목을 강의하려면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총지불교대학이 본 종단의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와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전 승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즉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강사진은 물론 수강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 일방적인 사업의 추진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통리원을 비롯한 지원부서도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체제 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원신축 전당건설회의"

포항 수인사 신축 설계의뢰

◇내년에 새로운 도량으로 포항의 밀법을 포교할 수인사.

총지종 창종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포항 수인사가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다.

총지종은 지난 11월 11일 포항 수인사에서 수인사 신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축전담기구인 전당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축 설계를 의뢰하였다.

이날 전당건설 회의는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우승 통리원장, 집행부 각 부장과 건설전문가, 수인사 지공주교, 수인사 교도들이 참석하였다.

수인사는 총기 원년 신관동 소재 3층 빌딩 중 2층을 임대하여 포항선교부로 개설하고 총기 3년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매수하여 수인사로 개칭하여 현존하고 있다.

수인사는 전 종령이신 록정대종사, 복지화 전수가 교화하셨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곳으로, 교도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한 사원이다.

이번 전당건설회의에서 수인사 교도들은 "오래된 학교 건물을 서원당으로 개설하였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구조가 학교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인근 사람들은 수인사가 존재하는 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하다."며 "수인사의 교화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축으로 절다운 도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인사 신축은 년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천사, "합창단 특별출연"

대구교사 국악회, 제12회 정기연구회

◇제12회 대구교사 정기연주회에 특별출연한 개천사 합창단과 배해근 지휘자.

대구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대구교사 국악회 제12회 연주회가 '시와 국악이 머무는 곳에'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9일 대구 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대구 교사 국악회의 궁중음악을 시작으로 우리춤 공연, 대금산조 연주, 시노래와 국악관현악 연주, 창작국악관현악 연주, 민요와 국악관현악 공연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연주회의 총지휘자인 배해근씨는 대구 심인고등학교 음악교사이며, 총지종 개천사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로 음악적 소질이 뛰어나 대구지역에서 그 명성이 대단하다.

특히 개천사(주교 경원) 합창단 단원들이 이번 연주회에 특별출연, 그동안 갈고 닦은 음성공양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관중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연주회를 마친 배해근 각자는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교사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주회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속에 회향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부처님의 법을 음성으로 공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해근 각자는 지난 5월에 '음성공양 받으소서'의 총지종 찬불가를 제작하고 발표함에 있어 총책임을 맡은바 있다.

알림방

☞ 괴산수련원 관리인 이종근 각자님이 지난 11월 22일 열반하였습니다.
☞ 총지종 창교절 행사가 12월 24일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대법고

부처님 진신지골 사리 한국이운의 참뜻

법원주림에 "8만 4천 사리탑 가운데 중국에 19탑이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치저우(岐州)의 법문사 탑 아래 부처님의 손가락 뼈인 불지사리가 묻혀 있고, 서기 704년(장안4년) 측천무후가 현수국사 법장을 법문사로 보낼 때 해동신라국 시랑겸 한림학사 승무랑 정수병부시랑 최치원을 동행시켜 탑기첨례(탑의 지하궁을 열고 불지사리 참배)를 했다."는 7일간의 행도기록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당 · 송이래 장쩌민(江澤民)에 이르기까지 황제는 이 불지사리 봉양이 관례가 되어 내려왔고 민간에서는 이에 빌면 소원성취 한다 하여 기적의 신령스러운 성보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성스러운 불지사리가 지난 11월 11일 중국 법문사에서 한국으로 이운되어 서울은 펜싱경기장에서, 부산은 벡스코에서 각각 20일간씩 친견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신앙 대상물은 신앙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그러나 한국 불자들은 불지사리에 대한 신성함과 영험성을 체득하지 못하고 단지 중국의 보물로 간주하여 호응과 관심도가 떨어져 친견법회를 찾는 대중이 없어 썰렁함을 자아내고 있다.

11월 9일 중국 법문사에서는 불지사리를 한국으로 봉송하기 위한 이운법회를 개최하였다. 불지사리는 중국에서 귀중한 국보로 지하의 유물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으로 이 불지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이날 법회에 참석하는 인파는 수천으로 법문사 도량은 만장기와 인파들로 가득하였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불지사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 십명의 중국 공안과 무장한 군인이 출동하여 삼엄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중국내 신문과 방송 등 모든 언론기관들은 불지사리 한국이운법회를 취재하느라 분주하였다.

이운법회에 참석한 수천의 중국 불자들은 경영하는 상점을 휴업하고 법회에 참석하였으며, 법회가 봉행되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을 합장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또한 불지사리를 한국으로 이운하기 위해 비행기에 선적하는 의식에서 새벽 1시의 밤늦은 시간이지만 중국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중국 방송매체에서는 이 광경을 화면에 담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의식을 집전하는 중국 스님들의 모습은 엄숙하고, 장중하였다. 이 의식에 참석한 스님 및 사부대중들은 불지사리가 마치 부처님께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불지사리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내리는 과정에서 한국 불자들은 마치 화물을 내리듯 중국에서 가졌던 장엄하고 엄숙한 의식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한국 불자들은 겨우 몇 십명에 불과했다. 조계사와 펜싱경기장으로 이운하는 과정에서도 의식이나 법회에 참가하는 한국 불자들은 겨우 몇 백 여명이었다.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가지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너무나 큰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마치 부처님처럼 모시고 공양하는 불지사리가 한국에서는 단지 중국의 중요한 보물로 밖에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호간 가치관의 차이인지 아니면 불심의 차이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불지사리는 부처님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분신이 태국, 홍콩, 대만에서의 친견법회는 성황리에 마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신앙적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앙적 공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신앙 대상물은 신앙 그 자체로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과 안위를 제공해야 하며, 대중들에게 회향하는 행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5년 10월 27일부터 2005년 11월 28일까지

개천사	김동근	11. 15	10,000	덕화사	김상열	11. 15	10,000	백월사	유승태	11. 23	6,000
개천사	무명씨	11. 11	5,000	만보사	민분순	11. 24	10,000	백월사	이갑진	10. 31	10,000
개천사	무명씨	11. 15	5,000	만보사	배정임	11. 14	10,000	백월사	한정훈	11. 11	5,000
개천사	이희권	10. 28	10,000	밀인사	무명씨	10. 28	10,000	벽룡사	오기순	11. 18	10,000
관성사	박길화	11. 9	10,000	밀인사	김덕배	11. 22	10,000	삼밀사	김주희	11. 28	20,000
관성사	이시우	11. 2	10,000	밀인사	신대식	11. 22	5,000	삼밀사	이은옥	11. 1	20,000
관성사	이혜원	10. 31	5,000	밀인사	신동의	11. 22	5,000	삼밀사	이현숙	10. 27	50,000
국광사	복기운	11. 24	5,000	밀인사	신동희	11. 22	5,000	성화사	우담바라	11. 15	100,000
기로원	대관	11. 21	10,000	밀인사	이연수	11. 28	10,000	수인사	김봉기	10. 28	10,000
기로원	대자행	11. 21	10,000	밀인사	이재호	11. 23	10,000	수인사	한애숙	10. 28	20,000
기로원	법장화	11. 21	10,000	밀인사	이혜성	11. 22	5,000	실보사	송희준	11. 17	10,000
기로원	불멸심	11. 21	10,000	밀인사	허을순	11. 16	10,000	실보사	안경숙	10. 28	5,000
기로원	상지화	11. 21	10,000	백월사	김예진	10. 31	10,000	실보사	안경숙	11. 25	5,000
단향사	공철봉	11. 15	15,000	백월사	박삼순	11. 1	10,000	실지사	정경자	11. 17	5,000
실지사	정우석	11. 9	10,000	총지사	이인성	11. 16	30,000				
운천사	김성숙	10. 27	20,000	통리원	지정	11. 21	20,000				
운천사	박보경	11. 1	20,000	혜정사	수증원	10. 28	20,000				
운천사	박보경	11. 16	20,000	혜정사	수증원	11. 23	20,000				
운천사	상견성	11. 22	50,000	혜정사	조성기	11. 28	10,000				
자석사	우바이	11. 17	80,000	혜정사	혜보심	11. 10	30,000				
정각사	구정희	11. 21	20,000	화음사	강수림	11. 3	5,000				
정각사	김점남	10. 28	10,000	화음사	신정화	10. 27	20,000				
정각사	박훈휘	11. 18	10,000		무명씨	11. 22	5,000				
정각사	이란이	11. 15	10,000		안화자	11. 25	10,000				
정각사	조현필	10. 28	5,000		이화수	11. 17	5,000				
정심사	박옥란	11. 16	20,000								
정심사	오윤보	11. 18	5,000								
제석사	효 강	10. 27	1,00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향기맑은 사람

박식한 사람의 귀는
보석 없이도 빛나고
베푸는 이의 손은
팔찌 없이도 빛나는 법
그대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몸에 바른 전단향 때문이 아니라네
그대에게는 그대 아닌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이라네

- 수비시따/인도 잠언시집중에서

공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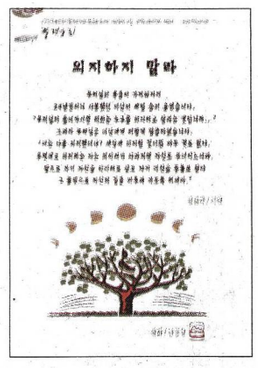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날카로운 이빨을 지닌 범은 뿔이 없다.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두 개 뿐이다.
예쁜 꽃치고 열매가 변변한 것이 없다.
열매가 귀한 것은 대개는 꽃이 시원찮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한 몸에 다 지니는
이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부귀영화는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꺼번에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졌던 것마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지려 들지 마십시오
손에 든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쥘 수 있는 법입니다.

- 정 민/ 한양대교수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24년간이나 시봉했던 아난이 제일 슬피 울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했더냐? 세상에 의지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무엇에고 의지하는 자는 의지처가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지느니라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그 불빛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며 가도록 하여라."

- 김원각/시인

틈

허공엔
주먹이나 온갖 것이
다 들어가듯이

구멍 하나 없는 나무토막에
못이 박히는 것은
그 안에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강철을
무르디 무른 물이 해집고 들어가
매끈하게 잘라 낸다는 것도
역시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마음의 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 법현스님/열린선원원장

이달의 명상

나눔의 공덕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집 앞에 이르자 그 집 부인이 공손히 밥을 들고 와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심어 백을 낳고, 백을 심어 천을 거두느니 오늘의 이 착한 나눔으로 인해 큰 공덕의 바다에 이르리라," 그 집 부인은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물러갔습니다. 집 안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남편이 믿어지지 않아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여쭈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만을 올린 것뿐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행나무를 보라. 크고 좋은 나무는 해마다 몇 가마니의 열매를 떨구지만 그 씨앗인 은행 한 알 한 알은 작지 않느냐? 땅은 아무 생각도 없는 존재이지만 은행 한 알을 싹틔워서 잘 자라게 한 후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는 힘은 정말 크다. 하물며 생명의 근원인 부처님의 경우는 어떠하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한 그릇의 밥을 올릴 경우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 말을 들은 그들 부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부부는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종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멈 / 추 / 지 / 않 / 는 / 사 / 람 / 들 / 총 / 지 / 종 / 보 / 사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㉜

태장계만다라 '금강수원(金剛手院)'의

금강구여보살(金剛鉤女菩薩)·금강수지금강보살(金剛手持金剛菩薩)·지금강봉보살(持金剛鋒蓮菩薩)

지난 호에서는 금강수원의 금강살타와 발생금강부보살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금강구여보살(金剛鉤女菩薩)과 금강수지금강보살(金剛手持金剛菩薩), 지금강봉보살(持金剛鋒蓮菩薩)에 대해서 살펴본다.

금강구여보살(金剛鉤女菩薩)

금강구여보살은 갈고리[鉤]를 들고 있는 보살이다. 그 갈고리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그림과 같이 삼고저(三鈷杵)를 말하는 것이다. 손에 들고 있는 삼고저는 지혜를 나타낸다. 그 갈고리로써 중생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삼고저를 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길로 인도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식은 이 보살의 인(印)을 맺고 진언을 외우며 제불보살(諸佛菩薩)을 만다라단(曼荼羅壇)에 부르는 형태가 된다. 금강계만다라의 금강구보살(金剛鉤菩薩)과 같은 동체(同體)이지만, 금강계만다라의 금강구보살은 오른손에 구(鉤-갈고리)를 들고 있고 태장계만다라의 금강구여보살은 왼손에 금강구를 들고 있는 점이 다르다.

금강구여보살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소집금강(召集金剛)이다. 중생을 불러 모은다는 뜻에서 소집금강이다. 삼매야형은 지혜의 무기인 삼고저(三鈷杵)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으로 왼손에 금강구(金剛鉤)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취하고 있다.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 세우고 붉은 색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대구소인(大鉤召印)이다. 설명하자면, 큰 갈고리로써 중생들을 불러들이는 결인(結印)이란 뜻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아크사라바타라 하라찌카데 다타갸탕 구쎄 보지샤리야 하리호라게이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하! 모든 곳에 장애가 없는 자여! 여래를 구소(鉤召)하는 자여! 보리행을 원만하게 하는 자여! 사바하'이다. 이를 대구소진언(大鉤召眞言)이라 한다.

금강수지금강보살(金剛手持金剛菩薩)

금강수지금강보살은 앞서 살펴보았던 금강살타(金剛薩埵)의 다른 이름으로, 금강수보살과 지금강보살의 이름이 합쳐져 붙어진 이름이다. 왜 합쳐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금강수(金剛手)나 지금강(持金剛)이나 '금강저(金剛杵)를 손에 들고 있는 자'라는 의미는 모두 같다. 이 존(尊)을『대일경』에서는 '견고한 지혜의 저(杵)를 지니며, 몸을 장엄함에 영락(瓔珞)으로 한다'고 설하고 있다. 경궤(經軌)에는 Mamaki에 해당한다고 한다. '마마키'의 '마-'라는 글자는 '모친(母親)'의 뜻이며, '마키'는 '많다'는 뜻이라 하여 '많은 대중의 어머니', 즉 '금강살타를 비롯한 금강부(金剛部) 제존(諸尊)의 모친(母親)'이란 뜻이다.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견고보살(堅固菩薩)이다. 금강수와 지금강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 더욱 견고함을 나타낸다하여 견고보살이다. 지혜가 금강저와 같이 단단하고 확고하다는 의미이다.

삼매야형은 마찬가지로 삼고저(三鈷杵)이다. 존형(尊形)은 엷은 황색으로, 왼손은 삼고저를 들고 오른손은 여원인을 하고 붉은 색 연화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지지인(持地印)이다. 땅을 지니고 있는 듯한 손모양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 바쟈라담 다리다 다리다 자엔지 사바하'이다. 뜻으로는 '널리 금강부족(金剛部族)에게 귀의합니다. 다리다! 다리다! 뛰어난 존(尊)이시여! 사바하'이다.

금강수지금강보살

지금강봉보살(持金剛鋒蓮菩薩)

지금강봉보살은 금강봉(金剛棒)이라고 하는 창(槍)을 손에 들고 있는 보살이다. 금강봉의 봉(棒)은 예리한 창을 말하는 것으로 대지혜(大智慧)로써 번뇌를 멸하고 파괴하는 덕성(德性)을 나타낸다.

지금강봉보살

이 보살의 밀호는 신리금강(迅利金剛)이다. 중생에게 이로움을 신속하게 얻게 하는 금강보살이다. 삼매야형은 일고극(一鈷戟)이다. 날끝이 하나로 되어 있는 창이란 뜻이다. 존형(尊形)은 적육색(赤肉色)으로 왼손은 주먹을 쥐고 위로 젖혀서 배꼽 밑에 놓고 오른손은 봉(棒)을 들고 붉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마찬가지로 지지인(持地印)이다.『대일경』에 설하고 있는 진언은 '나막 사만다 바쟈라담 사라바 다라마니리베이다니 바쟈랑시 바라데이 사바하'이다. '널리 금강부족에게 귀의합니다. 일체법에 관통한 자여! 금강침(金剛針)이여! 서원을 이루는 자여! 사바하'의 뜻이다.

그런데『대일경』「구연품」에 이 보살을 상징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대력(大力)'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별도로 독립하여 하나의 존명(尊名)이 되었는데 바로 사자(使者)인 '대력금강(大力金剛)'이 그것이다. 이 '대력을 가진 자', 즉 '대력금강'은 입단관정(入壇灌頂)의 수자(受者)를 가지하여 만다라에 끌어들여 섭취하는 본존이며, 이 본존의 대비(大悲)를 갖춘 지혜로부터 행자는 여러 가지의 성취를 얻게된다고 한다. 이때의 진언은 다음과 같다. '옴 하라찌기리칸다 다바에 이만 사트바 마카바라'이다. '옴! 대력을 가진 자여! 그대는 이 몸을 섭취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 통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살피고 다듬어 나가자

▶어느날 하늘 나라의 신선이 심심해 하다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는,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 두 명을 불러 너무나도 진귀한 옥을 하나씩 주며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이 옥을 잘 다듬어 놓거라"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당대에 제법 폼 잡던 장인 두 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피식 웃으며 자신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옥을 보았는데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그 옥이 지상에서는 없는 너무도 영롱하고 진귀한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귀한 옥에 보기 싫은 티가 한 가운데에 떡 하니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을 아껴주는 것

집으로 돌아온 장인 한 명은 너무도 귀한 옥에 자리잡은 티가 보기 싫어서 정성껏 티를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티를 깎아내고 보니 그 안에 또 티가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 티와 계속 시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신선은 다시 두 명의 장인을 불러 올렸습니다. 티를 정성껏 깎아냈던 장인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티를 깎아내다보니 그 진귀한 광채는 온데 간데 없고 티만 크게 불거진채 볼품없는 옥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신선이 옥을 내놓으라고 하자 장인은 옥을 힘없이 내어 놓으면서 신선 얼굴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네 옥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무도 귀한 옥에 있는 티가 보기 싫어서 그것만 없애려 하다보니,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선은 빙그레 웃으며 다른 한 명의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되었는고?" 다른 한명의 장인은 아무 말없이 보자기에서 옥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장인이 꺼내놓은 옥은 그 진귀한 광채는 말할 것도 없고 보기 싫은 티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신선은 미소를 머금으며 "그래,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 장인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옥을 보고는 티가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자칫 옥이 다칠까봐 옥을 깨끗이 해주고 자주 광을 닦아주며 매일매일 그 광채를 보며 황홀함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옥은 스스로 자란다더니 옥이 제 스스로 티를 없애가는 걸 보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완벽한 옥이 되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진언행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단점과 결함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고치려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다듬는 방법은 단점이나 잘못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잘못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단점에 더 많이 신경쓰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의 동료, 자녀, 소중한 배우자도 점점 티를 스스로 없애는 옥처럼 그 소중한 가치를 더욱 더 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혹시 옥의 티를 깎아내고만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경/ 사무국장 겸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식재법

밀교의 호마법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네가지로 나누는 데 이를 사종수법이라 한다.

사종수법에는 재난을 소멸하는 식재법과 소원성취를 위한 증익법, 존경과 사랑을 받게하는 경애법, 일체사마를 조복하는 항복법이 있다.

식재법은 재난을 소멸하는 의궤법이다.『심요집』에 의하면, 식재법은 악업 중죄 전뇌의 장애 등을 소멸하고 갖가지 재난과 구설의 관재 및 아귀들에 의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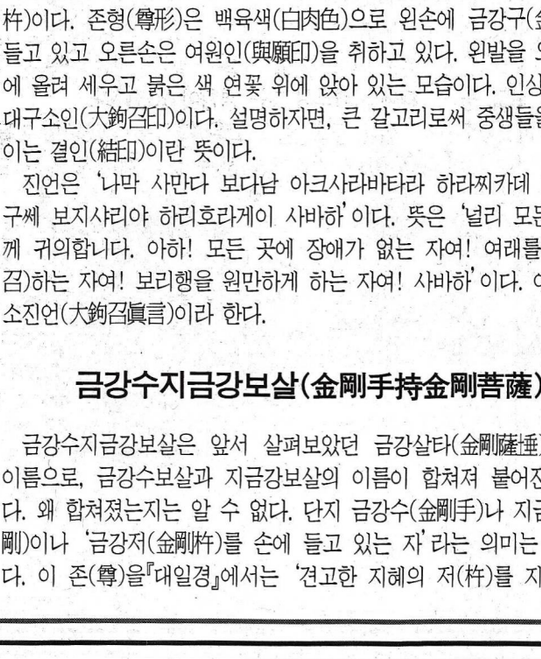
식재법은 흰색의 원형단에 바자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육자의궤에 따라 준제진언을 한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000생 000제재난 사바하'를 3편 지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재난소멸을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간지와 이름을 넣어 지송한다.

식재를 소원할 때는 식재법의 투명단중(백색용지)에 불공받을 사람의 생과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희사고에 넣는다.

식재는 재난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은 이를 극락왕생으로 천도하는 불공도 포함된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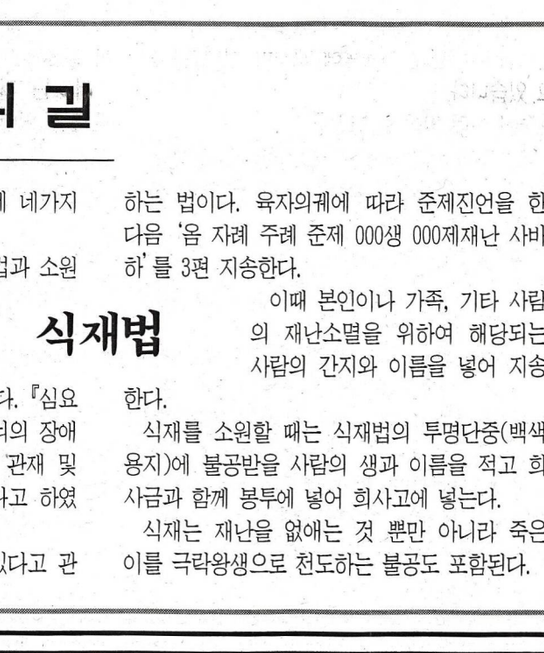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칼럼

연고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불교계 낙후성 극복은 유능한 인재양성
조직체 구성에 연고자 없애고 전문가 등용

불교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낙후한 집단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통탄스런 일이지만 불교계는 어느 한 구석 다른 집단보다 앞서 간 구석이 없다. 사고방식도 낙후하고, 제도도 낙후하고, 사람도 낙후하다.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정치적으로 낙후하고, 문화적으로도 낙후하다. 너무나 낙후해서 때로는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이다. 그토록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어찌 이토록 낙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불교계는 왜 이렇게 낙후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불교계 실력자들이 천박하고 우둔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 힘깨나 쓰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천박한 분위기를 물씬 물씬 풍긴다. 행동거지와 말투에 조야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도저히 종교계의 지도자로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서 강압적으로 물건을 파는 목청 좋고 수완부릴 줄 아는 장사치처럼 보인다. 또 이른바 불교계의 두뇌집단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두뇌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무뇌아들이다. 불교계의 각종 학회나 세미나에 가 보면 전혀 지적인 번뜩임을 찾아 볼 수 없다. 하나같이 눈동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뜻도 통하지 않은 말들을 주고받는다. 마치 정신병동에 와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불교계가 낙후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도자가 무능하고 우둔한데 어찌 그 집단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불교계가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우둔한 지도자들을 대신할 유능한 지도자를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낼 수가 없다. 일자리는 부족한데 비해 인적 자원은 넘쳐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이지만 불교계는 정반대이다. 그간 인재 양성에 투자하지 않은 관계로 불교계에는 인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인재조차 제대로 선발해 쓸 줄을 모른다. 아니 의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배제하고 무능한 사람을 골라 쓰는 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현실이다.

불교계의 인사 문제는 한마디로 연고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연고주의는 불교계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불교계에서 특히 심하다. 불교계에서는 그 어떤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건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일이 없다. 주지자리는 물론이요 종단의 민간인 행정 요원들도 마찬가지다. 사찰의 사무장은 대게가 주지의 친인척이다. 모두가 해당 직책에 임명권을 가진 사람과 직간접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종단만 그런 것이 아니다. 종립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방송국이나 여타 불교계 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원들 채용도 마찬가지이다. 공개채용 형식을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공개채용 형식을 취해도 결국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

불교계의 연고주의는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을 경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절을 지을 공사를 발주할 때도, 사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도, 대형 행사에 필요한 물자임대와 인력을 구할 때도 모두 연고에 의지해서 한다.

학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두루 섭외해서 적임자를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가 있어도 행사 주최측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초빙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이유는 바로 실력자들의 무능함과 부도덕성 때문이다. 불교계의 실력자들은 너무도 무능하여서 항상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유능하고 똑똑한 자가 들어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여긴다. 이들 무능한 불교계 실력자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다. 대부분의 일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다보니 온통 협잡과 비리 투성이다. 사람을 쓸 데 연고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가는 이러한 협잡과 비리가 폭로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불교계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협잡꾼과 "바보들의 행진"이다.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는 한 불교계의 발전은 없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아무리 좋은 구호를 내세워도, 협잡꾼과 바보들이 짝을 이루어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한 불교의 미래는 없다. 불교의 새 출발은 이들 협잡꾼과 바보들을 밀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종인(보정)/ 법장원 연구원〉

이달의 설법문안

연꽃처럼 사는 삶

불교의 깨달음은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현대는 개성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뽐내듯 각기 다른 머리와 의상,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보살님들을 보더라도 각기 얼굴 모양이 다르고 입고 있는 옷들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각기 다른 가운데 자신들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도 우주의 통일된 질서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살님들도 현재는 각 개인마다 사상과 생각, 가치관, 겉모습이 다르더라도 모든 보살님들은 서원당안에서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백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속에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머리가 앞서고 꼬리가 뒤따르는 것이 불만이었던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습니다.

"머리야, 오늘은 내가 앞서 갈 테니 선두를 양보할 수 없겠니?"

뱀의 머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앞서 갔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머리가 앞서서 갔습니다. 그러나 꼬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칭칭 감고는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머리가 꼬리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꼬리는 칭칭 감았던 것을 풀고 앞서 갔습니다. 그러나 꼬리에게는 눈이 없어서 뱀은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죽고 말았습니다.

"소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라"는 속담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왕이면 남들이 알아주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꼬리의 역할을 하느니 머리의 역할처럼 남들보다 발전적이고 성공한 삶을 꿈꾸고 머리의 삶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꼬리의 역할보다 머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꽃이 되기를 원하고,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꼬리가 없이는, 뿌리가 없이는 조연이 없이는 결코 제 빛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음지가 있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어 음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화는 인과법의 원칙으로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자신의 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이 있고, 꼬리는 꼬리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엔진이지만 바퀴라든가 브레이크, 하다못해 아주 작은 나사가 적시 적소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않으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큰 사고의 위험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기관 중에 눈이나, 귀, 코, 입, 장기, 땀구멍 하나라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에 불편을 느끼거나 심하면 목숨이 위태롭게 될 지도 모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 나름대로 몫을 갖고 있으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남이 하는 일은 괜히 폼 나 보여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만, 남의 이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위층 인사들이나 유명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한숨을 쉴 필요도 없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아서도 안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 그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평하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각자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할 때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는 발전하고 우리 종단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출세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보니, 과정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거나 즐기는 것은 고사하고 성공을 위해 마지못해 인내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하는 일은 보잘 것 없는 것쯤으로 치부하며 출세하면 결코 이 따위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며 다른 사람의 역할에만 눈 돌린다면, 결코 자기다움과 보람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도 이 사회가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 사회를 떠받치는 큰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별 볼일 없다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거나 부끄러워하며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는 사람을 사람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인간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버려서는 아무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방법은 없는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해 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할 때와 주체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그 사회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자기가 맡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 된 사람은 애써 지키고 관리하며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지 계획하고 구상하며, 사랑과 정열을 쏟고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노력할지언정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혹시 소홀하거나 무관심했던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열악한 한경을 영양분삼아 청아한 연꽃을 피워 그윽한 향으로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주위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며 사는 삶이 바로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삶이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인다운 삶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람다움의 의미가 가볍게 여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헐거워지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각박해지고 혼탁한 사회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이 고귀한 인간의 가치가 돈이나 물질보다 낮게 취급되는 가치의 전도는 자꾸만 관심의 방향을 바깥으로만 치달리게 하여 탐욕심을 부채질할 뿐,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반성하며 스스로 해야 할 바와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인간성은 메말라가고 사회는 물질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에 지배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진흙 뻘과 같은 사회를 살맛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사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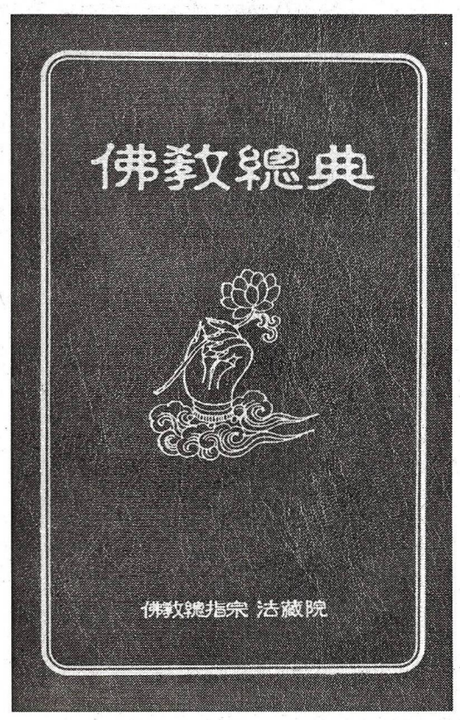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해서 이 세상의 일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고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릇된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불교의 목적인 불국토 건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람노릇을 제대로 하는 인간미 넘치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알고 거짓을 진실로 착가하며 전도된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고 바른 길잡이가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사회화는 다만 이상일 뿐이고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부처님께 매달리는 '무늬만 화려한 진언행자"가 아닌 참다운 진언행자로 거듭나서 이 사회의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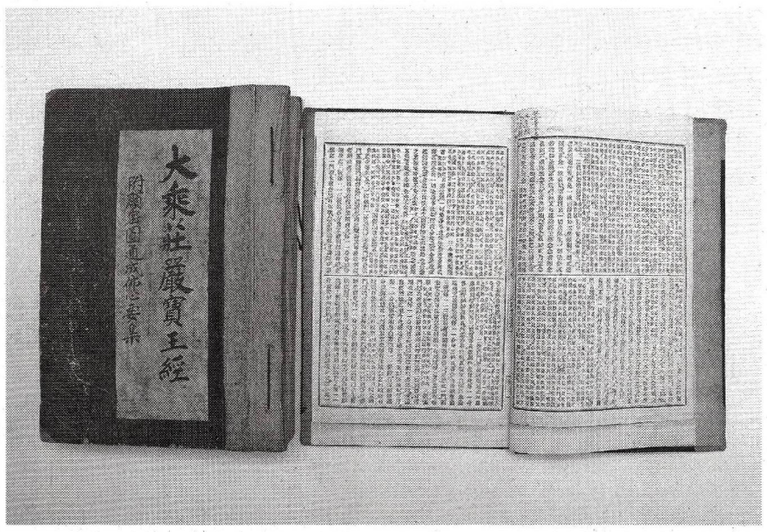
총지법문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 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획연재>

밀교(密教)란 무엇인가? 〈3〉



대일여래는 삼라만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여래의 이법, 금강계 만다라는 진언밀교 구회만다라

7. 만다라(曼荼羅)의 기초지식

이 세상(現世)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만다라라고 하는 의미도 한마디로는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반에게 알려지고 있는 의미는 인도의 산스크리스트의 만다라를 한음(漢音)으로 음역(音譯)한 것이 만다라라고 한다. 만다(曼荼)는 본질(本質) 또는 심수(心髓). 라(羅)는 얻는다는 해석으로서 본질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본질 그 자체, 일체제법을 구족한 것 이라는 오리(悟理)의 경지(境地)를 표현한 하나의 세계를 목전(目前)에 제시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주석에 의하면 무상정등각의 본질로서 얻어진 경지는 이 이상 없는 우승(優勝)하고 순정한 것이며 평등원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평면이지만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 앞에서 입체가 되고, 피가 통하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구경(究竟) 보는 자 (行者)와 보이는 측(曼荼羅)의 상대적 관념은 생명에 의하여 관계가 맺어져서 육성(育成)되어 가는 것이다.

잘 관찰하면 무량한 복지(福智)의 공덕이 취집(聚集)되어 있다. 그리하여 신(身). 구(口). 의(意)의 삼밀(三密)이 원만하게 지배하고 있다. 즉 그 원만함은 우주간의 신체상, 언어상, 정신상의 모든 활동, 다시 우주 그것의 경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보리(菩提)는 대일여래의 경지다.

우주의 삼라만상의 구석구석까지 대일여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우주가 곧 대일여래의 자체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여래의 삼밀은 삼세(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시방(十方)에 편만(遍滿)하여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삼밀이 원만하다함은 만다라에 무수한 불, 보살이 시현(示現)되어 있는 것이다.

만다라라고 하는 무대는 석존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특정한 좁은 장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보리심)을 가지고 전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세계다.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 감각을 마음에 머물게 함은 자성(自性)만다라(曼荼羅)다. 자성(自性)이라 함은 마음속에 비장(秘藏)한 인간의 가능한 한의 에너지이며, 깨달음이란 이렇게 가장 순화된 에너지가 완전 연소될 때에 일어나는 일찰나이며 하나의 정적(靜寂)이다.

만다라는 한역(漢譯)으로 구역(舊譯)에서는, 단 신역에서는 윤원구족(輪圓俱足), 취집(聚集)으로 역(譯)하고 관(觀)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시대와 함께 점차로 통합하게 되었다.

인도의 만다라에 대해서는 일자불정륜왕경(一字佛頂輪王經)과 만다라경 등에 금강지와 선무외삼장 시대에 인도의 그림으로서 만다라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보존된 것이 없다.

일반으로는 다라니집경(大正藏 第十八書 813-6)에 상세히 기술된 것처럼 흙을 돋우어 단을 모으고, 향니(香泥)를 바른 다음 그 위에 만다라를 그린 것인데 이것을 토(土) 만다라(曼荼羅)라고 한다. 그 작법은 칠일작단(七日作壇)이라고 하여 최초에 계선(界線)을 그어서 최후에 아사리가 존상(尊像)을 그려 모실 때 까지 칠일이 걸린다. 만다라가 되면 거기서 엄숙한 관정(灌頂)의식도 행하고 식재(息災)나 증익(增益)불공도 한다.

불사가 끝나면 만다라는 곧 헐어버리는 것이 통례다. 이러한 토 만다라는 수법 때마다 만들었다 헐었다 하는 것이 번거로워 결연관정(結緣灌頂)때 투화득불(投華得佛)에 쓰기 위해서 부 만다라를 만들어서 현재도 일본에 남아 있다. 최고의 예(例)는 동사(東寺)에 현존하는 채색본으로서 종이 2m80cm의 큰 것이다.

양계만다라는 대일경에 의한 태장계만다라와 금강정경에 의한 금강계만다라의 두 가지가 있다. 대일경은 칠세기 반경에 서남인도에서 성립되었으며 금강정경은 남인도에서 팔세기초에 성립되었다고 한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여래의 이(理)법신을 표현하여 불(佛)의 대비(大悲)를 태장에 비유한 생명 그 자체의 세계관이다. 이십대원(十二大院)(중태팔엽원, 변지원, 지명원, 금강수원, 관음원, 석가원, 문수원, 제개장원, 지장원, 허공장원, 소실지원, 최외원)으로 되어서 414존을 모시고 있다.

금강계만다라는 진언밀교(眞言密敎)에서는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를 쓰고, 천태밀교에서는 성신일회의 만다라를 쓰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구회(九會)는 천축수의(天竺隨宜)인 설(說)이라고도 한다. 대일여래의 지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금강은 각오의 지혜의 신체는 견고하여서 모든 물체를 쳐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구회(九會)(성신회, 삼매야회, 미세회, 공양회,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강삼세갈마회, 감삼세삼매야회)로 되어서 1461존을 모시고 있다.

만다라제작을 최초로 기술한 책으로는 성령집이란 책 칠권이 있다.

만다라중에는 별존만다라와 신통미술의 만다라도 있다. 밀교에는 현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법에 네 가지(식재, 증익, 경애, 항복)가 있다.

(1) 한재(旱災), 홍수(洪水), 지진(地震)등의 천재지변으로부터

(2) 치병(治病), 화재(火災), 장수연명, 번영, 원적퇴산(怨敵退散)등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개별본존이 필요하였다.

1) 아미타만다라(중앙은 관자재보살)

2) 법화만다라(법화보탑품에 의한 법화신앙이 밀교에 섭취된 것)

3) 청우경만다라(비를 비는 본존으로서 중앙은 석가불이다.)

4) 보루각만다라(당공양, 멸죄를 위하여 사용)

5) 불안만다라(식재, 항복을 위하여 사용)

6) 일자금륜만다라

7) 육자경만다라(주, 반역, 치병을 기원하는 본존)

8) 존승만다라(출산등에 쓰인다.)

9) 오비밀만다라

10) 여의륜만다라

11) 팔자무수만다라(천재지이에 쓰인다.)

12) 미륵만다라

13) 인왕경만다라(진호국가를 위하여 쓰인다)

14) 애염만다라(경애법의 본존)

15) 십이천만다라(안인법의 본존, 안진만다라와 다르다)

16) 염마천만다라(제제를 목적으로 하는 명도공의 본존)

17) 동자경만다라(동자의 병을 낳게하는 동자경법의 본존)

18) 성만다라(북두법의 본존으로서 성숙을 공양하고 제대연명을 목적으로 한다.)

8. 우주와 삼라만상에 대한 만다라관 및 법신불의 체(體), 상(相), 용(用)

밀교는 우주와 인간과 모든 삼라만상의 구성요소는 지, 수, 화, 풍, 공, 식의 육대라고 간주하고 모든 성왕괴공(成往壞空)은 모두 육대연기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전체(全體)를 법신불(法身佛)의 당체(當體)라고 본다.

이러한 육대연기로서 변화하는 상(相)을 통칭(統稱)하여 실존만다라라고 보며 그것을 넷으로 나누어 사만(四曼)이라고 하고 법신불의 활동상 즉 삼밀이라고 보는 것이다.

(1) 대만다라

육범(六凡) 사성(四聖)의 십계중에 불, 보살을 위시한 일체유정의 상을 대만다라(大曼荼羅)라고 한다.

(2)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모든 불, 보살의 기구를 비롯하여 십계중에 산천초목 국토기구 및 일체 비정물(非情物)은 모두 삼매야만다라에 속한다.

(3) 법만다라(法曼荼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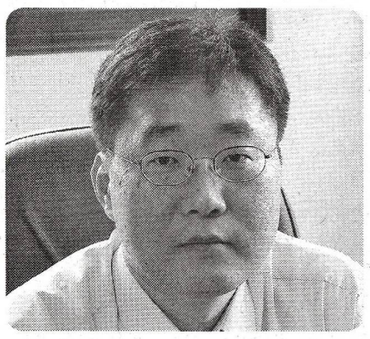
토(土)만다라, 도회(圖繪)만다라, 일체경전과 불, 보살 및 명왕, 천왕등의 조각상과 이들의 명칭과 인간의 성명, 일체유정비정들의 음향언어, 일체문자와 그림등을 법만다라(法曼荼羅)라고 한다.

(4)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

십법계중의 모든 유정 비정들과 일체유형 무형물은 각각 육대연기에 의하여 변천동작이 있으므로 이것을 갈마만다라라고 한다. 불보살의 사업 즉 중생제도 활동도 이에 속한다. 이 사만(四曼)을 법신 대일여래의 상(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여래(如來)의 삼밀(三密)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본 글은 원정 종조님의 원고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현대의 문맥과 어투에 다소 차이점 있습니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정신신체장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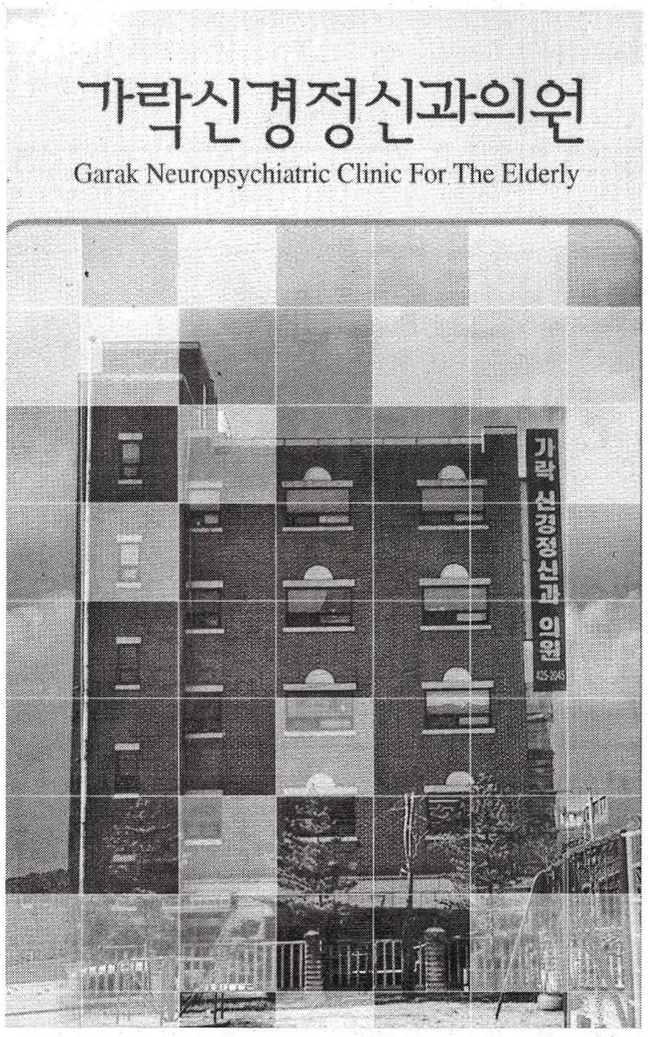
정신신체 장애란 소위 신경을 쓴 후에 몸이 아파지는 경우로 보통 노이로제로 일어나는 신체증상을 말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질투와 시기가 배를 아프게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민간에서 '신경성'이라고 부르는 병명이 이에 해당되며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할 때 신경성이란 마음 감정이라는 뜻이다. 또한 '자율신경 실조증' 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즉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율신경에 지배를 받는 장기인 심장, 혈관, 소화기관 및 호르몬기관이 영향을 받아 분노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이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소위 '홧병' 도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신체적 검사를 시행시 별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신신체장애의 원인은, 어떤 특정한 무의식적 갈등이나 특정인격이 생체의 평형상태를 깨뜨려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방어를 약화시켜 신체증상을 일으키고 조직을 손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만성적이고 심한 스트레스는 많은 신체적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 긴장성 두통을 잘 일으킨다.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스트레스를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도와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여 불안이나 분노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면 증상에 호전이 온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 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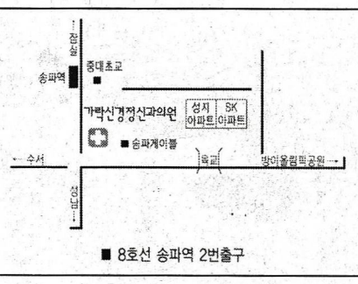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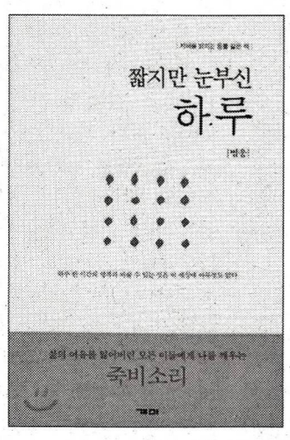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신 간 안 내

짧지만 눈부신 하루

법웅 저 / 개미 / 정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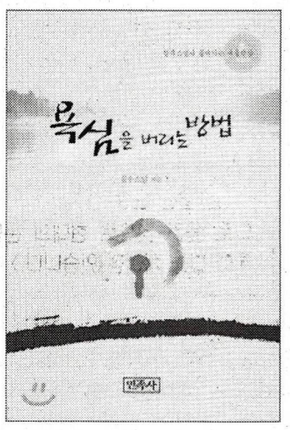
사람끼리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사랑, 이해, 용서, 베풂, 미소, 낮춤, 여유, 관용이라면 이 글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놓치기 쉬운 소중한 것들이 녹아있는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글들, 이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모두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마음 따뜻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서문 중에서

목차 : 1. 지혜의 연못 2. 깨달음의 연못 3. 인연의 연못 4. 자비의 연못

욕심을 버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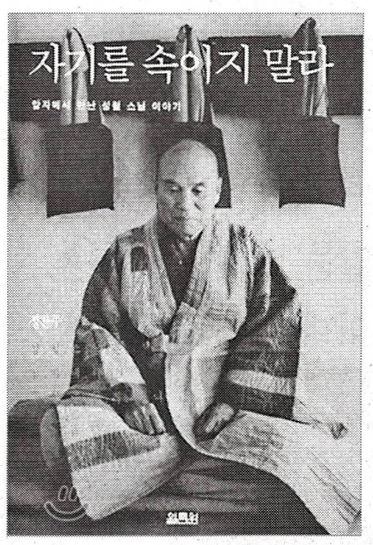
철우 스님 저 / 민족사 / 정가 8,500원



법보신문과 불교신문에 연재된 철우스님의 삶 속에서 느낀 계율 단상을 모은 것을 불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계율에 얽힌 이야기이다. 출가불자이거나 재가불자의 기본 되는 삼귀의와 오계를 비롯하여 십계 마흔여덟 가지 경구계 등의 계율을 직접 파사 영산율원에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을 통하여 솔직하게 그려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의 방편으로 계와 율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 암자에서 만난 성철 스님 이야기

정찬주 저 / 열림원 / 정가 9,800원



모든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하고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철 자신부터 '불기자심'을 평생 동안 실천한 데 있지 않았을까.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라고 볼 때 나그네는 성철 스님을 생불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불기자심이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았던 성철 스님을 우리 시대의 부처라 부르고 싶어지는 것이다. --- 본문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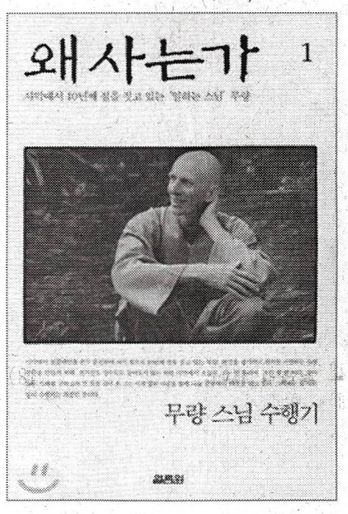
소설『산은 산 물은 물』을 통해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바 있는 정찬주 씨가 이번에는 성철 스님이 수행의 터전으로 삼았던 암자들을 따라가며 그곳에 새겨진 스님의 말씀과 발자취를 글로 담아냈다.

'불기자심(不欺自心)', 즉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화두를 품고 8년간의 장좌불와 수행으로 자신과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낸 성철 스님. 평생 자신과의 약속에 어긋남이 없었던 구도자, 그 철두철미한 생은 한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정찬주 씨는 스스로 또다른 구도자가 되어 살아생전 성철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추억과 에피소드를 책 한권 안에 가득 불러들였다. 1부 '성철 스님 암자 기행'에서는 백련암, 운부암 등 스님이 머물렀던 암자들을 따라가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저자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펼쳐냈으며, 2부 '어둔 마음을 밝히는 성철 스님의 말씀'에서는 스님이 중생들에게 전한 말씀을 어록 형식으로 차분히 정리했다. 작가의 암자기행에 동행하며 사진 작업을 병행한 유동영의 흑백사진은 글로써 미쳐 표현하지 못한 스님의 자취를 향취 그득 전해준다.

왜 사는가 1·2 : 무량 스님 수행기

무량 저 / 열림원 / 정가 9,500원



한번은 대웅전으로 다가오는 거무스름한 곰을 보았다. 어두운 털색깔에 크기는 사람만 했다. 야생의 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산이 살아 있다는 것,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곰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또 한번은 트럭에 올라타서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의자 밑바닥에서 땅바닥으로 스르르 내려가는 방울뱀을 발견했다. 사막의 한낮이 뜨거워 시원한 차 안에서 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실수로 뱀을 밟거나 문을 닫아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이런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위험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이 땅의 원래 주인이므로 불과 10년 전에 들어온 내가 이들을 쫓아내거나 다치게 할 마음은 전혀 없다. 결국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 끝까지 남게 될 이들이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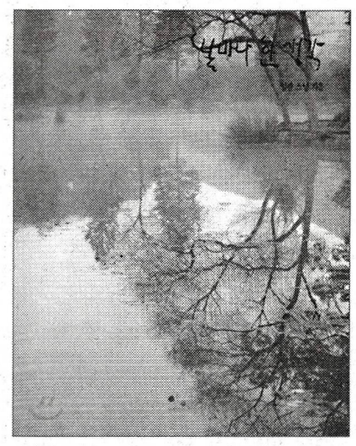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10년째 한국식 절 '태고사'를 짓고 있다 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무량 스님. 그의 삶과 수행일기를 담았다. 어린 시절, 보이스카우트 마스터의 죽음과 어머니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생각 많은 아이로 자라난, 하지만 지극히 평범하기만 했던 미국 청년 '에릭'. 변호사도, 비행사도 될 수 있었던 잘나가던 예일대생 '에릭'은 왜 돌연 머리를 깎고 깊은 선방으로 들어앉은 것일까. 그는 이 책『왜 사는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성경으로도, 철학자의 깊은 깨달음으로도, 요가와 히피문화라는 자유의 촉매제로도 가닿을 수 없었던 삶의 대한 목마름을 비로소 불가에서 채울 수 있었다고.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찾아간 숭산 스님의 법회에서 그는 오래도록 그를 옥죄었던 수많은 생각의 타래를 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일체의 번뇌로부터 물러앉았다. 그 후 한국에 들어와 수년 간의 정진과 만행의 시간 속에서 대중 속 수행의 지점을 고민했고, 그 결과가 지금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짓고 있는 '태고사'다. 환경을 생각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수행 공간 '태고사.' 전체적인 청사진조차 미리 가지지 않고 시작한 이 일 자체가 그에게는 그대로 수행의 한 과정이다.

1권에서는 무량 스님이 출가하게 되기까지 독특했던 성장기, 그리고 숭산 스님을 만나 23세 때 한국 불교로 출가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숭산 스님의 대표적인 화두인 '오직 모를 뿐' 등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녹록찮다. 풍수지리를 익히며 한국의 명산과 산사를 두루 돌아가는 수행과 만행의 이야기도 솔깃하다. 2권에서는 미국에 태고사를 짓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여정이 소개되어 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고민했던 한 평범한 불자의 내면 풍경이 담담하게 그려진다.

신 간 안 내

날마다 한 생각

일관 스님 저 / 아름다운인연 / 정가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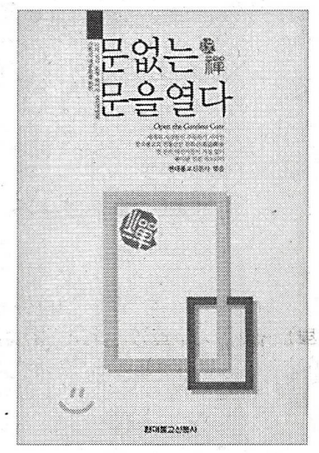


1988년부터 도심포교를 하는 동안 간간이 지면을 통하여 소개했던 글들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대중불교운동을 실천해온 스님의 생생한 포교현장의 경험과 소회가 담긴 책이다.

'생활 속의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스님의 평소 신념이 잔잔한 수필의 느낌으로, 때론 세상에 대한 깊은 고뇌의 흔적으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의 인연에 대해 여러 생각과 기억들로 담담하고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다.

문없는 문을 열다

편집부 저 / 현대불교신문사 / 정가 15,000원



이 법문집은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승 가운데 10분을 초청하여 연 '설선대법회'의 특별 법문을 엮은 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불교수행의 전통적 선인 간화선을 주제로 이야기 한 것이다. 20세기 이후, 세계의 지성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의 전통 선은 차후 인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불자는 물론 다른 종교권의 인사들에게도 우리의 궁극적인 주체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찾게 하여, 더 나아가 상생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해 줄것이다.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고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2시~3시 : 과제 및 학습
3시~4시 : 태권도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주실 뜻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혜 : 010-3913-6352, 이혜숙 : 010-4737-9321

교계소식

"안정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세계화"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취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법회가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취임법회에서 원로의원 혜정 스님의 고불문에 이어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원명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원래 눈 밝은 지도자는 어리석음 속에서 무생(無生)의 지혜를 빛어내고 탐욕속에서 이타적 덕성을 찾아내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해야 한다"며 "안으로 부쟁(不諍)의 덕을 넓혀 모든 대립을 원융통합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야 하며 밖으로 구제의 덕을 넓혀 사해·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또 "그 동안 종단에 크고 작은 불사가 많았으나 명안종사를 길러내는 인재불사가 매흡했다"며 "사람을 키워야 제방의 종지(宗旨)가 한군데로 모이고 모든 중생이 일승법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법문을 내렸다.

이어 원로회의 부의장 지혜 스님이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적 후 종단 안정과 화합과 총무원장 선거를 원만회향한 공로로 전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에게 포상을 내렸다.

중앙신도회와 조계사 신도회의 화한을 받은 뒤 지관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종도들의 한결같은 희망이자 승가 본연의 모습인 공의에 의한 종단운영을 통해 대중화합을 반드시 실현해 종단 중흥을 이룩해 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또 "반만년 민족의 역사와 일천칠백여년의 대승문명사를 외면하고 서양문물에 경도된 지식인들과 물질문명에 고통 받는 대중들이 지성의 광장에서 떳떳하고 활발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되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서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갈등을 극복해서 통합을 이루고, 경쟁과 균형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상생의 내일을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 외에도 법등 스님,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이명박 서울시장,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황패강 단국대 명예교수, 강우방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진석 대주교, 백도웅 목사,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원택 스님,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등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취임법회에 이어 진행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은 제막식, 기록물전시 관람 및 시설순방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연면적 5085평의 규모로 한국불교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각종 불교 법패 및 공연예술을 관람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불교문화전승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화 및 범패전승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불교의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 및 열람실, 종단의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한 중앙기록관, 사찰음식 보급을 위한 전통사찰음식연구소 및 식당과 각종 불교관련 민원상담을 위한 불교종합민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5주년

여성불자들의 연대강화, 인재양성

지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1월 24일 한국일보사옥에서 창립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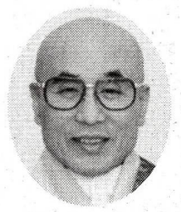
기념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포교국장 재현,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명담,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및 이인자(불교여성개발원 전 원장), 김의정(중앙신도회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숙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활동에 참여해왔다"며 "앞으로 가정을 지원하고 여성불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과 리더십 개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영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2000년 창립 이후 조계종의 여성연구교육기관으로 여성불교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여성불교인 재양성에 힘써 왔다"며 "2500년 전 계급과 성차별을 벗어나 대자유인의 길을 열어주셨던 부처님의 뜻을 계승하여 여성불자들이 성적 사회적 차별의 질곡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치사했다.

"수행 수칙 제정해 종단상 재 정립"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재임


운산 스님

지난 11월 10일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만장일치 추대로 태고종 제23대 총무원장에 재임된 운산 스님이 종단의 수행풍토 개선을 통해 종단상 재 정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산 스님은 총무원장에 재임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율장에 근거해 태고종만의 수행수칙을 제정할 것"이라면서 "과감하게 폐습을 버리고 관습적 생활체계를 바꿔 4년 후 달라진 종단상을 보여주겠다"고 수행을 통한 종단상 정립을 강조했다.

운산 스님은 "그동안 계율면에서 소승의 계율을 등한시하고 기본을 간과했던 게 사실"이라며 "선암사 대각암에 율원을 개설해 종정 예하의 지도아래 스님들에게 계율 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종단 수행풍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설명했다.

총무원장에 재임된 운산 스님은 이날 △화합과 안정 속에 도약하는 종단 완성 △국가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승가 실현 △전통법도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사찰 위상 실현을 종단운영의 3대 지표로 제시했다.

운산 스님은 42년 충남 청양생으로 59년 대전 대승원에서 이용봉 화상을 은사로 득도 수계했으며, 75년 국성우 종정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이후 태고종 총무원,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 등 종단 주요 기관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태고종 발전에 기여해오다 2001년 11월 제22대 총무원장에 당선돼 종단 중흥을 견인하고 있다.

"불교로 세상을 말한다"

'불교와사회포럼' 창립세미나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불교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이평래·김광삼·김규칠·김용표·성태용)의 첫 공식행사인 창립세미나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교수, 정치인을 비롯해 자영업자,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불자 300여명이 참석해 불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말하는 자유로운 토론공간에 대한 불자들의 열망이 컸음을 보여줬다.

첫 세미나 성격에 맞춰 포괄적인 주제를 다뤄 구체성은 다소 떨어졌지만,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활발한 토론 참여를 통해 그간의 갈증을 풀었다. 특히 향후 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주인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미나는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논평,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노부호 서강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김종욱 동국대 교수,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장이 각각 논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성택 교수는 불교사의 전개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명하며 현대사회에도 그 환경 변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새로운 불교의 등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세일 교수는 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과거 청산과 관련된 포퓰리즘적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는 불교적 관점에서의 '마음의 개조'와 '세계의 개조'가 조화를 이뤄야 함을 역설했다. 또 노부호 교수는 "불교경영이란 모든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중심의 논의가 돼야 한다 △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견해를 불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논쟁보다는 불교가 중심이 돼야 한다 △기독교를 의식하기보다는 미래학적 관점에서 포럼을 이끌어야 한다 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친환경 장묘법 '수목장' 관심 급증

복지부·산림청 법제화추진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매장하는 장례법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목장이 묘지 매장으로 인한 토지잠식과 호화 봉안당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 이른바 '묘지대란'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목장을 실시할 경우 산림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수목장이 몇 년안에 장묘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화장 전통을 가진 불교계는 이미 수목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와 금산 일불사 등은 사찰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고양 흥국사 등 사찰들도 기존 사찰림에 수목장림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강동구 교수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임야를 보유한 사찰을 중심으로 수목장을 검토하는 사찰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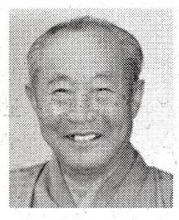
강 교수는 "동국대도 학교 소유 임야를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는 수목장 실시 계획을 가진 사찰들을 위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 환경단체들과 산골운동단체들도 수목장 캠페인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 상태에서 치러졌던 수목장에 대한 제도화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장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 수목장 등 자연산골시설을 '자연장 시설'로 규정해 합법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수목장에 대한 관리주체를 재단법인과 종교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도 내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사찰 주변 산지를 수목장으로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공익용 산지를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고 사찰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입적

"북한 현대불교의 산 역사'"


박태화 위원장

지난 11월 11일 86세를 일기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입적했다.

박 위원장은 1919년 10월 15일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에서 출생해 1935년 불가에 귀의했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묘향산 보현사로 출가한 박 위원장은 1941년까지 강원에서 공부해 '정식' 스님이 됐다. 그 후 1952년까지 백운사와 보현사에서 수도 정진했으며 1959 ~ 1969년에는 조불련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다. 1970년부터 9년간 조불련 부위원장을 역임한 박 위원장은 1979년부터 무려 26년간 북한 불교를 이끌어 왔다.

위원장을 맡은 후 1984년에는 조불련 대표단장으로 인도 원탁회의에 참가했으며, 1985년 소련, 1986년 조(朝)·스리랑카 불교친선협회 위원장으로 국제불교교류의 전면에 나섰다. 1980년대 말부터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법타 스님 등과 다양한 교류방안을 논의한 박 위원장은 이후 월주, 지선, 진관 스님 등과도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회담을 진행했다.

중국의 항주, 황산, 구화산 4박5일 즐거운 여행을…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최상의 친절.

2005년 8월 ~ 12월(20명 기준)

첫째날 - 인천출발, 항주 도착후 영은사관광

둘째날 - 중부 최대호수인 서호(유람선), 항주의 역사문화 정자사, 성황묘, 성황각,, 오산, 항주의 용정차 농원견학

셋째날 - 운곡사, 황산의 최고봉인 연화봉, 황산의 절경 광명정,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라 불리는 비래석, 배운석, 사자봉, 청량대, 시신봉 등 황산의 절경 관람

넷째날 - 구화산의 지원사, 육신보전, 화성사, 고배경대,등 구화산 관람

다섯째날 - 항주출발, 인천도착

LTC (주)엘티시여행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325

전화 : 02-734-9230 H/P : 011-204-7708

담 당 : 함 명 길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한국 친견법회

올림픽 펜싱 경기장, 부산 벡스코 특설법당

중국 시안 법문사 불지사리가 한국으로 이운돼 지난 11월 1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성휘 스님 등 중국 불교협회 관계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를 친견하면 신심이 절로 나고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지사리 한국이운 봉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올림픽 펜싱경기장 특별법당에서 '불지사리 친견 및 법문사 지하궁 유물 한국 특별전' 입재식을 봉행했다.

한중 양국 스님을 비롯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입재식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진신 불지사리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지극한 신심으로 불지사리를 친견해 수행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휘 스님도 "세계 유일한 불지사리를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불지사리는 불자들에게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한 많은 공덕을 지으리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유물 30여점을 함께 볼 수 있는 불지사리 친견은 서울(11월 11일~12월 3일)에 이어 12월 8~20일 부산 벡스코 특설법당에서 계속된다.

불지사리는 기원전 485년 부처님이 열반한 뒤 7일간 계속된 다비식에서 나온 길이 4cm의 손가락뼈 사리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뒤 법문사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자연 재해로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87년 법문사 진신보탑의 지하궁전이 발견되면서 유물 3000여점과 함께 발굴됐다.

법보, '독립언론' 새 출발

불국사, 9일 직원들에게 법보신문 이양 완료

'불국사 법보신문사' 발행인 종상 스님은 지난 11월 9일 법보신문 사장실에서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이학종 대표이사에게 유무형 자산가치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법보신문의 재산권 및 운영권 일체를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양했다. 이에 따라 법보신문사는 특정한 사찰이나 종단의 독점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이 되는 불교계 최초의 독립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날 법보신문사 이양식 자리에서 종상 스님은 "법보신문이 불교 정론지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렸다"며 "불국사가 신문사 운영 사찰에서 지원 사찰로 지위가 변했으나 법보신문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상 스님은 또 "법보신문이 더 큰 권위와 높은 품격을 갖춘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학종 대표이사와 모든 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학종 대표이사는 "지난 18년 동안 법보신문을 훌륭하게 키워 명실상부한 독립언론으로 사부대중에게 회향한 불국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법보신문을 불교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갖춘 불교계 대표 정론지로 우뚝 서게 하는 것으로써 불국사에 보답 하겠다"고 화답했다.

주식회사 법보신문사는 연내 증자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새 발행인을 추대하고, 사옥 확대 및 부대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격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천태종, 파키스탄 1가정 1고아 결연운동

파키스탄 평화기원법회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총재 운덕)는 지난 11월 15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국내 거주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100여명과 불자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키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이하 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불교와 이슬람의 따듯한 만남을 통해 종교간 이해와 평화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1가정 1고아돕기 결연운동을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스님은 "1가정1고아돕기 결연은 1명의 고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달에 100달러씩 1년에 1200달러를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해 결연아이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종단 차원에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천태종은 대지진으로 최소 8만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파키스탄 국민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종도들이 한달간 모금한 3만불을 파키스탄 피해자돕기 성금으로 주한 파키스탄 임티아즈 아메드 대사대리에게 전달했다.

이에대해 간다라미술협회 자이드 세이드 울 하산 파키스탄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상치 못했던 지진의 참상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부원장 춘광, 사회부장 무원, 교육부장 용암, 금강대 교무처장 경천 스님과 주한 파키스탄 임티아즈 아메드 대리대사, 파키스탄 간다라예술문화협회 자이디 사이드 울 하산 회장 등 협회원 9명, 국내 거주 파키스탄 노동자 100명과, 한-파키스탄 의원 친선협회 곽성문 의원(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정보 다이제스트

노인불교인구 갈수록 줄어든다

65세 이상 종교를 가진 고령인구 가운데 불교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단체 참여율도 대폭 떨어져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005 고령자통계'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3년부터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통계를 발표해온 통계청에 따르면 종교인구 중 불교를 믿는 고령자 수는 감소했지만 타종교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인구는 1999년 57.2%였으나, 2003년 52.3%로 4.9%가 줄었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4.4%, 카톨릭은 1.3% 늘어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지만 점차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 종교단체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1999년 사회단체 참여자는 9.5%, 이 가운데 종교단체는 26.4%로 사교단체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사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74.2%로 20%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노인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로 이탈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5세 이상 독거비율 10년새 2배증가

1960년과 1970년대 경제개발의 주역이었던 현재65세 이상 노인세대가 육체적, 정신적 고독과 경제적 궁핍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급속한 핵가족화와 '황혼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8.9%에 머물렀던 65세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2000년에는 16.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자녀와 떨어져 노부부만 사는 '1세대 가구' 비율도 90년 16.9%에서 2000년에는 28.7%로 늘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65세 이상(남편기준)노부부의 이혼 건수는 1990년 466쌍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5.09배 늘어난 2,373쌍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이혼 증가율(3.04배)를 크게 능가하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도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2004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원으로 일반가구(28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11만원의 절반이 넘는 60만원은 자녀들이 준 용돈이나 정부 보조금이었으며, 노인들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만원과 10만원 내외에 불과했다. 또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율도 올해 12.6%에서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14.9%와 21.8%를 기록하고, 2030년에는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 취업률 학과별 '극과극'

"서울대 890개 학과중 순수 취업률이 50% 이하인 학과가 3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 학과는 취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영(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과 올해 2월 서울대 졸업자 가운데 군입대와 대학원 진학자를 뺀 순수 취업률은 52.0%로 전년에 비해 9.4%증가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전체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66.5%)보다는 14.5% 낮았다. 또 서울대 전체 89개 학과 가운데 41.5%에 달하는 37개 학과 순수 취업률이 30%를 밑도는 학과가 전체의 14.6%인 13개에 달했다. 학과별 취업률이 극심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계열인 사법학과(100%)와 간호학과(98.2%), 의학과(94.3%), 공학계열인 조경학과(93.3%), 치의학과(85.5%) 등은 높은 취업률을 보인반면 공법학과(0.0%), 작곡과(7.7%), 서양사학과(8.3%), 기악과(10.2%), 미학과(11.1%)등은 취업률이 낮았다.

'유학생 52% "영어 제2공용어로 채택해야"

유학생 10명중 5명은 영어를 대한민국의 제2공용어로 채택해야 하고, 영어교육은 8~13세 유년기에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종로유학원은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유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52.1%(100명)가 영어의 제2공용어 채택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47.9%는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시기는 초등학생 시기인 '8~13세'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시기인 14~16세가 32.8%, 유년기인 3~7세는 10.4%에 달했다. 고교시기인 17~19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5.7%, 20세 이상으로 대답한 유학생은 3.1%에 불과했다.

"일처리 잘했어" 직장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일처리 잘했다'이며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이런 것도 모르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는 리서치전문기관 폴에버와 함께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일처리 잘했어요'가 3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수고 많았어요' 21%, '일찍 퇴근합시다' 17.1%, '많은 도움이 됐어요' 15.6%, '참 좋은 아이디어에요' 9.7%, 도와줄게요 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36.4%가 '이런 것도 몰라요?'를 꼽았으며 '야! 너!' 17.2%, '제일 아닌데요' 17%, '00는 잘했는데...' 16.9%, '벌써 퇴근해요?' 12.7% 등이 있었다.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로는 '직원간의 배려와 존중(59.1%)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자기계발의 활성화(16.6%)'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14%)' '솔선수범하는 행동(9.1%), '사내동호회 활성화(1.3%) 순이었으며, 없애야 할 것으로는 '권위주의적 행동(30.5%), '이기적인 행동(23.1%), '남에게 일을 미루는 행동(19%)', 파벌형성(16.1%), '불필요한 야근(11.5%)'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모, 하루평균 6명 미혼모시설 입소

올 상반기 동안 하루에 6명 이상의 미혼모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부터 6월말 까지 전국 16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모두 1120명으로 하루 평균 6.1명이었다. 미혼모의 나이는 16~20살이 전체의 40.5%인 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21~25살이 38.2%를 차지했다. 15살 이하는 15명이었다. 이들 미혼모가 낳은 1120명 아이 가운데 73.6%인 824명은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됐고, 미혼모가 직접 키우는 경우는 171명(15.3%)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25명(11.1%)은 미혼모의 부모나 아이의 아버지 등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불량서클 70% 성인조직등과 연계

초·중등학교의 불량서클 중 70%는 다른 학교나 상급 ·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불량서클이 교외 폭력조직 등과 횡적·종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폭력의 조직화를 막으려면 이들 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월부터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초·중·고교생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에서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불량서클이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는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로 모두 70.6%가 학교 외부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7.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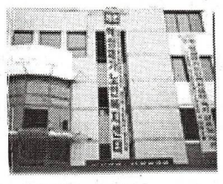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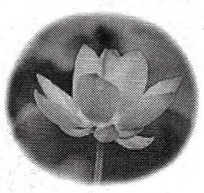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 · 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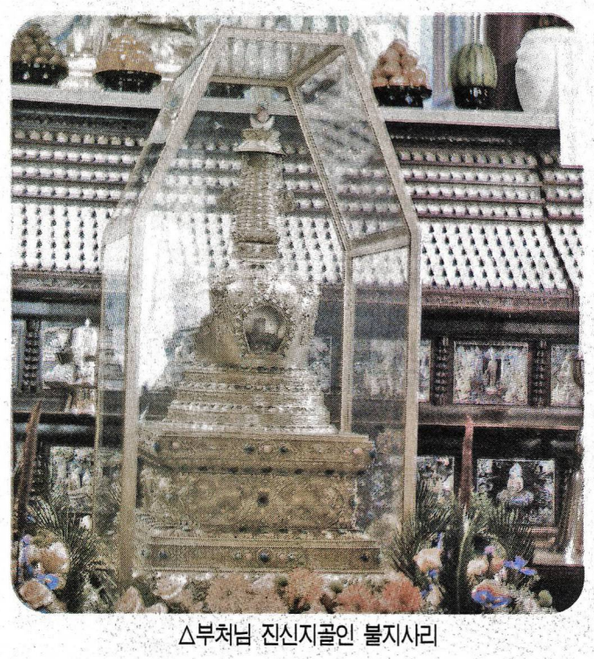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기획특집

중국 정통 밀법사찰 법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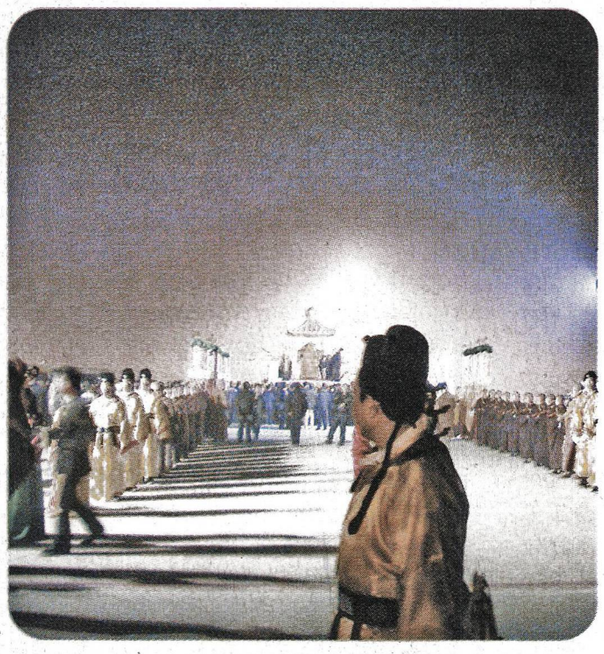
대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의 오묘한 조화로
그려낸 법문사의 유물과 불지사리
중국 당나라 시대에 완성된 황실 사찰 법문사!!
중국의 전통 밀법도량, 밀법의 만다라 세계가 펼쳐진 법문사
오묘하고 신비스런 밀법도량에서 탄생한
부처님의 진신지골 불지사리가 한국에 왕림하여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해탈의 길로 인도한다.


△부처님 진신지골인 불지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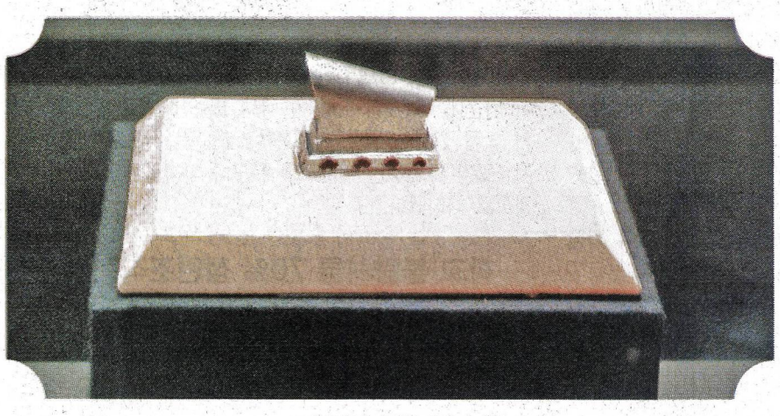
△금으로 만들어진 석장

△불지사리와 유물이 보관된 진신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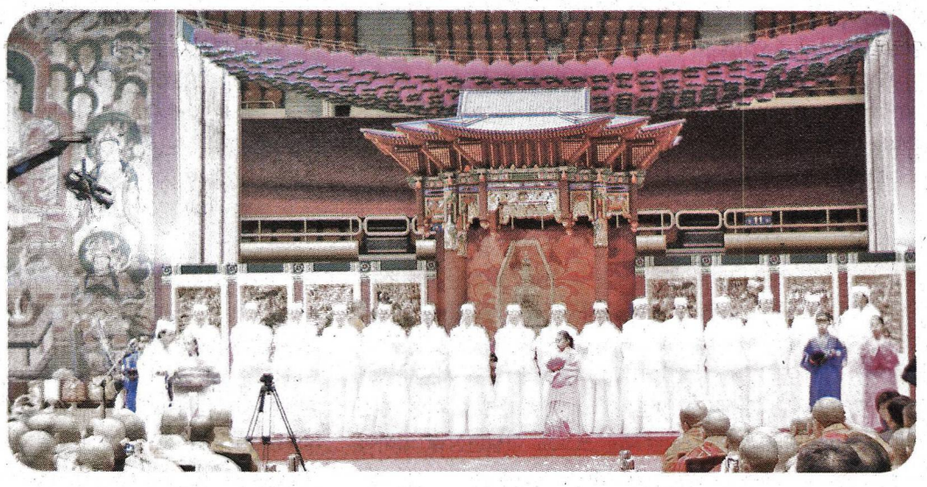
△남금 45존상 은보함 - 금강계만다라


△불지사리 비행기 선적의식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한국 봉송 법회


△불지사리가 보관된 함

△남금 45천왕 금정보함 - 태장계만다라


△서울 펜싱경기장 불지사리 한국 아운 육법공양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 · 정신적 · 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 · 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대 상 : 일반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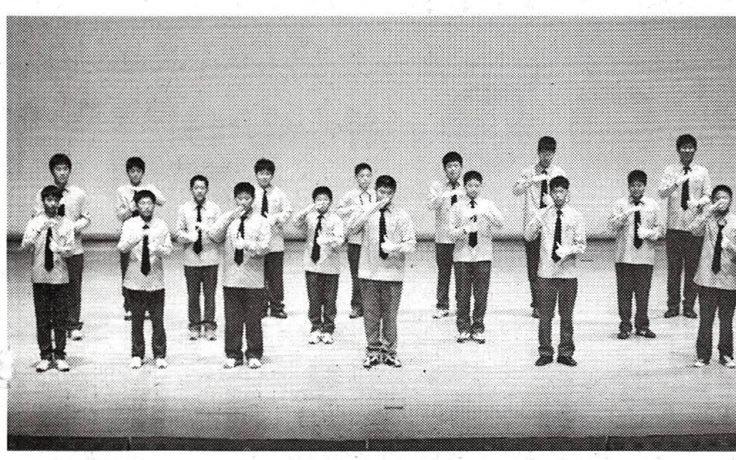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30,000원, 월 \20,000원
정각사 - 월 \20,000원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제2회 동해중 학예제, 자선바자회

동해인의 기와 예의 잔치



“단풍잎이 산록을 물들이는 11월 한 해 동안 교수, 학습 및 특별활동을 통해 가꾸어 온 동해 가족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소중한 자리, 자랑스런 동해인들의 기와 예의 잔치가 펼쳐진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는 지난 11월 21일 본교 소강당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학예발표회와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였다.

학예발표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다듬어 온 재능과 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행사로 제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3학년 김영외 28명의 모듬북 공연, 이환휘 학생의 한국무용, 김영태 학생의 가요독창, 강창엽외 8명으로 구성된 가요댄스반 공연, 수화반, 김은경, 견정인 교사의 듀엣, 허재응 학생의 비트박스(입으로 내는 기계음), 김홍주, 허윤호 학생의 바이올린 2중주, 강대성 학생의 독창, 학부모 김다금씨의 아리랑 민요창, 연극, 사물놀인 순으로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보컬공연, 마술반 학생들의 마술공연, 박성란 교사외 8명의 여교사 댄스공연, 장우현 학생의 피아노 독주, 모정탁 학생의 클라리넷 독주, 개그공연, 특공무술, 오카라나반 학생들의 오카리니 공연, 3학년 5반의 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학예제에서는 백일장과 사생대회, 과학발명반의 발명품 전시, 사진 전시, 도자기 전시, 비즈공예 전시 등 다양한 방면의 훌륭한 예술품 전시회도 열렸다.

특히 11월 22일에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정성으로 모아진 물품들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동해중은 제2회 학예발표회와 전시회,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있고, 자주적인 인재양성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제 1학기 총지불교대학원 종강

총지종 서울경인, 충청전라교구

총지종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통리원 반야실에서 서울경인, 충청전라교구 스승들을 대상으로 한 제1학기 총지불교대학원 종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개론, 비교종교학, 명심보감으로 이루어졌다

종강식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아닌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수강한 스승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출강한 스승에게 특별상을 수여하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종강 후 가진 간담회에는 제1학기 과정을 이수하면서 나타난 수업의 집중력 저하, 관심도 부족, 수업과목 선택의 적절성 등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총지불교대학을 주관하고 있는 법장원 관계자는 “스승의 자질향상과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총지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지불교대학이 총지종의 도제를 양성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도 한마디

총지종도 장묘시설 마련되었으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다. 날씨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 주위에서는 열반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러한 열반소식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친인척이 열반하게 되었다.

며칠간 밤샘을 세우며 영안실을 지키고, 영결식을 끝으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였다. 요즈음 장례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기로 하였다. 화장을 한 후 남은 것은 한 줌의 재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재!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남기 위해 그동안 모진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던가? 하는 삶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유가족들은 마지막 남은 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게 되었다. ‘산 속에 뿌리자’는 의견과 ‘납골묘에 안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납골묘에 안치하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산속에 뿌리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산속에 뿌리게 되었다.

총지종에서 수십년을 수행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총지종에서 운영하는 장묘지에서 묻히고 싶어 한다. 백발이 되어 수 십 년을 믿어왔던 종교를 바꾸는 것도 죽어서 묻힐 장소를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총지종의 가족제도가 저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총지종에서도 장묘시설을 마련하여 노보살들이 퇴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김영석/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신행체험 ㉖

불공으로 새생명 탄생

황월분 보살

〈단음사 신정회 회장〉

▶.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

저는 홀어머니 슬하에 1남 4녀중에 셋째딸로 자라던 중 18살에 열반하신 복지화 전수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포항 진각종 심인당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총지종이 창종되었을 때 총지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지화 전수님은 저의 아버님의 사촌동생이 되시는 분으로 진각종에서 교화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열반하신 묘회심전수님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 영천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천에 있는 천혜심인당에서 신행생활을 하던 중에 저한테 크나큰 재난이 오고 말았습니다. 약 30년전에 2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진리에 미약했던 저는 “내가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불공도 많이 하고 부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하고 한동안 번뇌에 휩싸이게 되어 퇴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자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재난이 발생하여 수계사에 계셨던 묘회심 전수님을 찾아가 지나간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참회하여 다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시면서 얻은 공덕은?

제가 총지종에 다니면서 얻은 공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제 나이 49살 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며 살던 저에게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간염이란 병마가 저를 엄습하여 대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때 집안 식구들은 저의 삶을 전부 포기한 상태였고, 제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일신행 전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 불공뿐이니 부처님께 매달리다 보면 어둠속에서 한 가닥의 등불처럼 부처님께서 구해주실 지도 모르니 한번 불공해 봅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때부터 염주를 잡고 불공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전수님도 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법을 세워 열심히 용맹정진하셨습니다. 몇 개월을 이렇게 불공하며 생활하였는데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오히려 생기가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급성간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더 불공을 한 후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인해 기적이 저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20년전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동안 제 몸을 닦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제 생명이 다하도록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은혜갚기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수행법은?

다른 사람들은 처처불공 시시불공으로 생활하면서 불공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 서원당에서 불공을 합니다. 하루 중 새벽에 불공할 때 정진이 잘 되는 것 같아 새벽불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공을 할 때는 마음과 희사, 정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몸만 서원당에 있고, 생각은 저 먼곳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불공을 하면 절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사는 탐심을 버리는 행위이며, 부처님의 세상에서 부처님의 공덕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실천행인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불공할 때는 지극한 정성과 마음가짐, 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성일이면 모든 가족들이 서원당에 나오는 것을 보니 가족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저는 부처님께서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가족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을 비롯하여 자녀들과 며느리, 손자들은 자성일이 되면 서원당에 나옵니다.

저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시험을 볼 때 항상 49일 불공을 합니다. 불공을 하다보면 시험보는 중 몇 째 시간에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었더니 시험보는 중에 제가 말한 시간에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느껴 속으로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항상 시험보기 전에 서원당에 나와 향공양을 하고 불공을 하게 합니다. 또한 군대갈 때에는 항상 절에서 향공양을 한 후 절에서 저와 헤어지고,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원당에 나와 불공을 하게 합니다. 절에서 불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부담감 없도록 가르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부처님 진리 안에서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 총지종 수행법의 좋은 점?

저는 옴마니반메훔의 진언공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우리 총지종 수행법이 다른 모든 수행법보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사찰에 가면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되지 못하고, 오로지 부처님께 삼배만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는 서원당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법문을 봄으로써 삶의 지혜를 증득하게 되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단음사 교도들 자랑할 점은?

단음사는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보살님들은 농사일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과 달리 시골의 순수함과 순박함이 넘쳐나는 곳으로 각 보살님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꾸었던 채소나 야채들을 절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교도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모든 보살들이 한 식구가 되어 도와주고 위로해 주곤 합니다. 마치 부처님 법안에서 이루어진 극락정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 총지종 종단과 단음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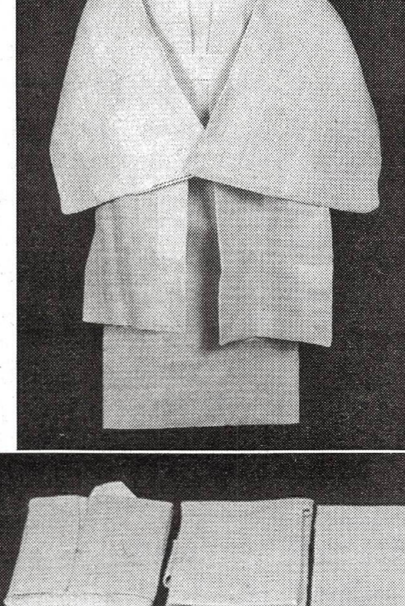
지금 총지종 교도들을 보면 노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총지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제도되어 들어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총지종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수행법과 포교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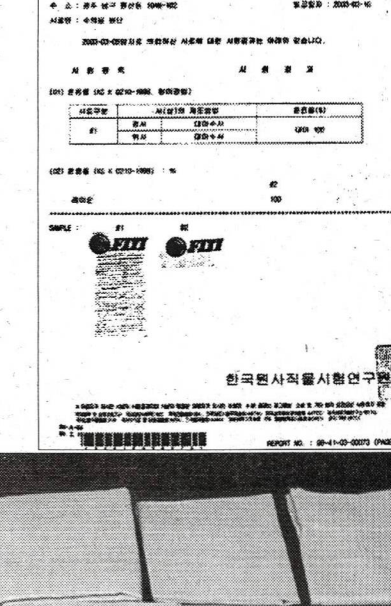
그리고 저희들은 총지종 불단과 진언수행법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일반사람들은 절이라고 해서 들어 왔더니 불상도 없고 이상하다고 하곤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불상을 봉안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음사는 정사님과 전수님이 보살님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고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사, 전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화합된 모습으로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단음사 교도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모든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원력으로 소원이 성취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孝는 만행의 근원…, “진삼베 수의”로 孝를 실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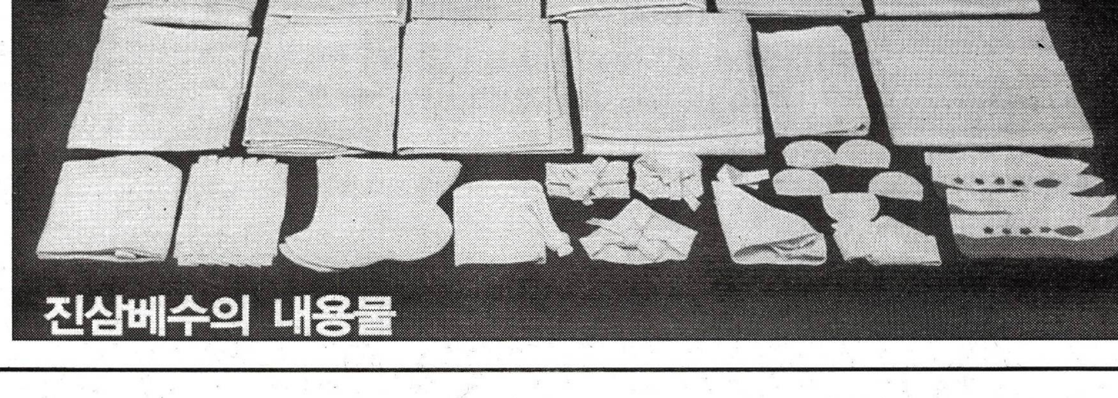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http://www.fiti.re.kr

시험성적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장

REPORT NO. : 99-41-03-00073 (PAGE 1 OF 1)



진삼베수의 내용물

수의(예복)이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과 모든 번뇌를 버리고 극락왕생할 때, 또한 조상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으로서 원단은 주로 진삼베를 사용했으며,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수의를 준비해 두시면 집안에, 우환과 삼재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누린다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입니다.

불교총지종에서는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 성적표를 받은 100% 진삼베 원단으로 보증받아 제작한 수의를 교도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삼베수의

삼베(大麻)는 고유의 독특한 항균기능을 함유하고 있어 예부터 조상님들의 생활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진삼베수의는 사부대중들이 입었던 수의로써 100% 진삼베(화순포) 220자를 사용하여 엄밀한 작업공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제작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수의내용

男 : 도포, 도포띠, 두루마기, 두루마기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대님, 행전, 천금, 지금, 장매, 맷배 (총23종)

女 : 원삼, 원삼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치마, 속치마,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사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족두리, 천금, 지금, 장매, 맷베 (총22종)

무료제공

본 수의를 구입하시면 건, 완장, 행전 각 10장씩과 명정, 관보, 습신, 예단 등 부속물 일절 및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입는 상복을 가족수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의보급가격

120만원(3회 분할납부 가능) 결재방법 : 온라인입금

연락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02-552-1080~3) ※ 수익금은 사원의 만다라 봉안불사에 쓰여집니다.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는 밀법도량

늦가을 바람에 단풍은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듯 이러 저리 뒹굴고, 들녘에는 가을 추수를 마무리 한 듯 황량한 벌판만이 흘러가는 가을을 지키고 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풍성한 마음으로 마치 부처님의 자비스런 모습처럼 모든 만물을 품안에 간직하며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정이 넘쳐나고, 도량가득 울러퍼지는 진언소리가 정겨운 수행도량 영천 단음사를 찾아가 본다.

사원연혁

단음사는 총기14년 영천시 완산동에서 인덕서원당으로 개설하였으며, 총기21년 영천시 성내동에 대지를 매입하여 단음사로 개칭하였다.

단음사는 일신행 전수님이 처음 교화를 시작하여 십 여 년을 넘게 이곳에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며, 그후 묘심해전수가 교화하였다.

현재는 안성정사, 유가해전수가 중생제도와 해탈을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하고 있다.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

『법구경』을 보면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시키나니 마음 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그러하리라.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그러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옛 선사들도 무어라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건만 우리에게 모든 요사를 부립니다.

우리 마음이란 과거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예측하기도 하며 앉아서 미국도 갔다 오고 달나라에도 갔다 오며,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작기로 말하면 바늘구멍만도 못하고 크기로 말하면 이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기를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합니다. 보고 만질 수가 없어서 '텅비어 없는 것 같은데 신령스럽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 몇 분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부리며 살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놈은 순간 순간을 방심하면 당나귀처럼 뛰어다니기 때문에 날뛰는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 순간 순간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날 때 욕심을 걷어치우고, 화날 때 화나는 놈을 싹둑 잘라버리고, 슬퍼질 때 당장 그 슬픈 상황을 돌리어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서원당에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 화나는 마음이 들 때면 한 순간을 참고 곧장 서원당으로 오십시오. 서원당안에서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나쁜 마음, 악한 마음, 화나는 마음을 착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연법

우리 사람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업(緣業)입니다.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인연과 업'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부모를 만나고 부부가 되고 자식을 두는 것도 인연이요, 업이며 괴로움을 받는 것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모두가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영화를 누리거나 고통을 받는 것 모두는 과거에 심어놓았던 씨(因)가 바로 이 시간 전까지의 여러 가지 주변조건(緣)과 노력(業)에 의해 맺어진 결실(果)일 뿐입니다. 단순히 금생의 일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능히 기억할 수 있는 금생보다는 감지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전생의 인연과 업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다가도 권좌에서 물러난 후 비난을 받으며 불명예 속에 사는 사람, 처음에는 죽도록 사랑하던 연인이나 부부가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갈라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두가 인(因)·연(緣)·업(業)·과(果) 곧 인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눈길을 옮기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인연들 중에는 절대적인 선연도 절대적인 악연도 없고, 절대적인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없습니다. 진언행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곧 연(緣)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가짐과 자세, 곧 굳건한 인(因)으로 열심히 노력하면(業) 또다시 좋은 결실(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실에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현실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공하는 것도 옴마니반메훔의 진언염송을 통해 모두가 좋은 인연을 가꾸어 나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소 : 경북 영천시 성내동 181-8번지
전화 : 054)333-0526

인 터 뷰

단음사 안성 정사, 유가해 전수

안정 정사

유가해 전수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총지종과 인연의 계기가 된 것은 우리 총지종이 창종되기 전 대전에 있는 진각종 신덕 심인당에 작은 어머니와 같이 갔었던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는 총기5년에 결혼하면서 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전에 있는 삼성동에 조그마한 가정집을 연상케하는 만보사에 작은 어머님이 다니셨습니다. 작은 어머님의 권유로 만보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때 총지화 전수님께서 교화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총지화 전수님은 저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는 어머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뒤 백월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기로스승이신 사홍화 전수님의 따뜻한 지도와 은혜로 지금 중생을 제도하는 교화의 일선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 그동안 총지종에서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로써 수행철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처님 법은 '심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인은 내 마음 가운데에 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마음 자성 부처님보다 더 큰 부처님은 없다고 믿고 육자진언을 염송할 때만이 과거의 그 어떠한 무거운 업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본래 있는 자성을 깨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다른 곳에서 만들거나 가져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은 인과법에 따라서 자기의 도리를 지키고 모든 선업을 행할 때만이 발전과 희망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부처님 정법을 믿고 정진하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이상 더 좋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히 수행 정진할 때만이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참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 즉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상한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길만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이라고 봅니다.

▶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남다른 교화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화방편이라기 보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보살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항상 보살님들에게는 바른 길잡이가 되는 동시에 부지런한 스승이 되어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부처님 정법대로 수행하면서 실천하다보면 교화는 저절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은 절대 거짓과 가식이 없습니다. 부처님 진리의 위대함을 믿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보살님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정진할 뿐입니다.

▶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단음사 선배님이신 일신행 전수님께서 온 몸을 바쳐서 일구어 놓으신 은덕으로 저희들은 별 어려움 없이 교화를 하게 되어 항상 스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다른 종단과 비교하여 불단의 구성과 수행방법, 불공의 식이 달라 새로운 교도가 들어왔을 때 스승으로서 전해야 할 모든 법을 다 전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절에 나오지 않을 때와 잘 다니던 교도가 사사로운 오해로 인해 번뇌를 일으키고 나오지 않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음사 각자님들과 보살님들은 순박한 신심으로 남달리 단합되고 화합이 잘되어 있고 스승님들을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며,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교도가정에 법이 와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도, 처방도 안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스승이 주는 법을 받아 불공을 해서 재난이 소멸되고 해탈이 되었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신심이 약했던 자손들과 친인척들이 제도되었을 때 스승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 마지막으로 총지종 및 단음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우리법 만나셨을 때 많이 많이 닦으셔서 가정 해탈하시고 소원성취하시어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서원드립니다. 단음사 교도들에게는 내형제, 자매처럼 돈독한 우애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행실천하시고 항상 교도가정에 부처님의 가지력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포도판매
(엠비에이 · 거봉 · 칸벨)
정 정 부
경북 영천시 녹전2동 904번지
☎ 054-335-1652

포도판매
(엠비에이 · 칸벨)
전 태 규
경북 영천시 녹전3동 706번지
☎ 054-335-3291, 011-9551-3291

포도판매
(엠비에이 · 칸벨)
윤 병 식
경북 영천시 원미동 864번지
☎ 054-333-6783, 011-813-6783

포도판매
(엠비에이)
정 석 재
경북 영천시 녹전동 499번지
☎ 054-335-6502

사과 · 복숭아 · 마늘
김 태 섭
경북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341번지
☎ 054-337-8458

포도판매
(칸벨)
윤 숙 이
경북 영천시 녹전2동 339번지
☎ 054-335-6550

포 도, 복숭아 판매
(엠비에이 · 칸벨)
권 손 남
경북 영천시 녹전3동 757번지
☎ 054-335-7778

포도판매
(엠비에이)
권 계 분
경북 영천시 녹전2동 309번지
☎ 054-335-7886

포도판매
(엠비에이 · 칸벨)
최 일 기
경북 영천시 녹전1동 502번지
☎ 054-335-6519

포도판매
(엠비에이 · 칸벨)
서 봉 조
경북 영천시 녹전2동 902번지
☎ 054-335-8654

포도판매
(엠비에이)
한 정 순
경북 영천시 녹전2동 384-1
☎ 054-335-5684

복숭아 · 살구
우 경 화
경북 영천시 문외동 영진궁전빌라 101동 313호
☎ 054-334-8341, 016-655-8341

각종 묘목 판매
(꽃, 매실, 앵두, 감나무)
전 종 식
경북 영천시 금오읍 양남동 710
☎ 054-338-1372, 011-334-1133

포 도 · 북숭아 판매
(엠비에이)
이 덕 기
경북 영천시 완산동 궁전맨션 101동 502호
☎ 054-332-3210, 016-251-6735

정 확 당
(금 · 은 · 보석 · 시계전문)
정 점 락
경북 영천시 완산동 982-5
☎ 054-334-2131, 054-334-2121

닥터 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상담)
전 형 근
경북 영천시 망정동 410-8
☎ 054-336-5096, 016-502-5096

장 우 동
(영천 망정점)
김 화 석
경북 영천시 야사동 190
☎ 054-332-3232, 054-332-3456

덕성농장
(농산물 · 과일 농협직판)
조 성 광
경북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366번지
☎ 054-337-8911, 017-535-7911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영천 영업소)
김 인 출
경북 영천시 완산동 청우빌딩
☎ 054-333-3272, 011-828-7665

대한생명
(영천 F · P 영업소)
박 희 지
경북 영천시 완산동 1056-3
☎ 054-334-2646, 011-9366-9287

일광축산유통
(한우전문)
정 영 식
경북 영천시 야사동 192-1
☎ 054-331-9598, 011-797-4001

영천하양철물상회
(각종철물 도 · 소매)
안 충 근
경북 영천시 완산동 982-6
☎ 054-334-4842

호성산업
김 효 석
경남 울산시 호계동
☎ 052-297-1646, 011-586-1646

동진산업
박 동 흠
경북 영천시 오수동
☎ 054-333-1990